

# 2022 평가원 기출분석 가이드

커넥츠 스카이에듀

영어  
이상인 저



# 2022 평가원 기출 분석 가이드

이상인 저

## □ 저작권 안내

이 교재에 관한 모든 저작권은 **SKYEDU** 이상인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이상인 선생님의 허락 없이 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을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영어강사 **이상인**  
연세대학교 졸업

현 스카이에듀 인강 영어강사  
현 대치 다원교육 영어영역 강사  
현 대치이강학원(대치,영통)영어영역 강사  
현 대치 세정학원(대치) 영어영역 강사  
현 광릉 한샘학원 영어영역 강사  
전 오르비 클래스 인강 영어영역 강사

# 들어가는 말

과거 교육부는 영어 사교육 시장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1. EBS 직접연계
2. 영어 절대평가

결과적으로 수능 영어는 영어 교육의 본질을 벗어나 점점 더 EBS 지문과 내용을 암기하는 단순 암기 과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에 평가원은 **2022학년도 수능 영어에 있어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 EBS 연계율 70 → 50%로 축소
2. EBS 직접연계 → 간접연계로의 전환

이렇게 되면...

**단순 EBS 암기식의 학습법은 더 이상 수능 영어의 승부처가 아닙니다.**

영어 1등급을 위한 여정은 달라져야 합니다.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독해 실력 향상이 관건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문장 해석이 아닌 평가원의 각 유형별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에 맞는 접근 방향성을 정확하게 확립하고 그에 맞춰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독해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평가원 기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출분석을 어떻게 해야할지 방향성을 못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수능문제 분석을 통해 기출 분석의 방향성 정확하게 확립해드리겠습니다!

2021년을 준비하며  
영어강사 이상인



# 우리는 왜 기출 분석을 해야 할까?

## ○ 평가원 발표

1. EBS 연계율 70 → 50%로 축소
2. EBS 직접연계 → 간접연계로의 전환

## ○ 간접연계의 의미?

☆ 2018학년도 간접연계 예시

◆ 2018학년도 수능특강 11강 5번	◆ 2018학년도 수능 22번
<p>5.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Sometimes, it seems that people simply like to try new things — they are interested in variety seeking, in which the priority is to vary one’s product experiences, perhaps as a form of stimulation or to avoid being bored. Variety seeking is especially likely to occur when people are in a good mood, or when there is relatively little stimulation elsewhere in their environment. In the case of foods and beverages, variety seeking can occur due to a phenomenon known as <b>sensory-specific satiety</b>. <b>Put simply, this means the pleasantness of a food item just eaten drops while the pleasantness of uneaten foods remains unchanged.</b> So even though we have favourites, we still like to _____ . Ironically, consumers may actually switch to less preferred options for variety’s sake even though they enjoy the more familiar option more.</p> <p style="text-align: right;">*satiety: 포만(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store some extra food</li> <li>② stick to familiar brands</li> <li>③ sample other possibilities</li> <li>④ buy more healthy food items</li> <li>⑤ hide our opinions from others</li> </ol>	<p>2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b>Sensory-specific satiety is defined as a decrease in appetite, or the subjective liking for the food that is consumed, with little change in the hedonics of uneaten food.</b> As a result of sensory-specific satiety, when people consume a variety of foods, they tend to overeat. A greater variety of food leads people to eat more than they would otherwise. So, being full and feeling sated are separate matters. The recovery of appetite or the motivation to eat is apparent to anyone who has consumed a large meal and is quite full, and does not require additional energy or nutrients to meet their daily needs, but decides to consume additional calories after seeing the dessert cart. Small changes in the sensory properties of foods are sufficient to increase food intake. For example, subjects who were presented with different shapes of pasta showed increased hedonic ratings and increased energy consumption relative to subjects eating only a single shape of pasta.</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necessity of consuming a varied diet in daily life</li> <li>② reasons for people's rejection of unfamiliar foods</li> <li>③ changes in people's preference for basic food items</li> <li>④ impact of food variety on the amount of food people consume</li> <li>⑤ importance of maintaining food diversity to prevent overeating</li> </ol>

※ 사실 시험장에서 간접연계를 느낄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EBS 연계율이 줄어들고 게다가 직접연계가 간접연계로 전환된다면 사실상 EBS 연계의 의미는 사라진다.**

그동안 부족한 영어 공부량을 EBS 직접연계에 의존해서 수능 영어시험을 봤다면..  
 이제 수능 영어에서 1, 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독해 실력의 향상이 관건이다.  
 뿐만 아니라 수능 시험을 출제하는 평가원의 문제 유형별 평가요소 및 실제 출제 경향에 맞춰 논리적인 접근방법을 체화하고 그에 맞춰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필수이다.

**이제 우리는 기출분석의 가장 체계적이고 명확한 논리적인 코드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인T가 제안하는 평가원 기출 분석 공부법

## STEP 1. 지문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 1. 단어에 집중해라!

문장을 해석하다보면 모르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해석했을 때 의미가 어색해지는 단어들을 발견하게 된다. 사전을 찾아서 문장 내에서의 정확한 의미의 쓰임을 확인하고 암기하라!

### 2. 지문에 나오는 중요한 구문을 체크하라

지문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평이한 문장구조 외에 특이한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보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언제고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조를 확인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 STEP 2. 유형별 지문의 논리적 접근방식을 체화하라!

### 1. 각 유형마다 평가원의 평가요소 및 출제 방향성을 분석하고 체화하라!

각 유형마다 평가원은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요소가 있고 그에 따라 문제를 출제한다.

또한 문제를 출제하는 평가원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평가원의 평가요소 및 실질적인 출제 방향성을 분석하고 체화해야 한다.

### 2. 우리가 체화한 방법을 가지고 5~7개년 평가원 기출 문제를 풀고 확인하라!

이제 평가원 기출을 공부할 준비는 끝났다. 각 유형별로 5~7개년 문제들을 풀면서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





## CHAPTER 1

---

필자의 의도가 중요해

[대의파악, 빈칸추론]

## 대의파악 유형 [18, 20, 21, 22, 23, 24번]

### ○ 평가원이 제시하는 출제 방향

주어진 지문을 읽고 전체적인 주제와 요지를 파악한 뒤 핵심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필자의 의도를 도출해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1. 대의파악 유형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글의 핵심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글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함축적이거나 은유적으로 또는 의문문이나 명령문 등의 다양한 형태로 필자의 의도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지엽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으면서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어야 한다.
2.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또는 역접의 연결어(예: however)가 제시된 경우 그 이후 부분을 중심으로 지문에서 제시되는 반복적인 어구 또는 특정 개념과 관련된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글의 흐름을 따라가며 주제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나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선택지를 분석하여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선지를 선택해야 한다.
3. 선택지에서 정답을 찾을 때 오답이 가진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한다. 오답의 경우 지문에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거나 지문과 일부 연관성을 가지고 제시되기도 하지만, 중심 소재나 주제를 모두 아우르기에는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일반적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정답을 선택해야 한다. 즉, 오답은 주로 지문의 일부 내용 요소를 다루지만, 지문의 내용과 무관한 것을 언급하거나 중심 소재나 내용 요소를 언급하지 않는 특징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 이상인가 제안하는 접근 전략!

1. 대의파악 유형의 지문은 필자의 의도를 담고 있는 글이므로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2. 필자가 자신의 의도를 주장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글을 써내려가는 흐름을 mapping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3. 영어에서 필자의 의도를 담은 글은 크게 3가지의 흐름의 방향성을 갖는다.

1) 삼단논법	2) 수미쌍괄식	3) 통념 → 반박
논리 전개 1 ↓ 논리 전개 2 ↓ 결론	필자의 의도 ↓ 근거 & 부연설명 ↓ 결론 [필자의 의도]	사회적 통념 ↓ 반박 & 필자의 의도 ↓ 근거 & 부연설명 ↓ 결론 [필자의 의도]
→11페이지에서 설명	→11페이지에서 설명	→12페이지에서 설명

## 1) 삼단논법 | A → B → C 귀납적 추론방식으로 논리적 전개를 통해 필자의 의도를 출해 내는 방식

[2021학년도 수능 20번 필자의 주장 유형]

논리적 전개 1	Developing expertise carries costs of its own. 전문지식을 개발하는 것은 대가가 따른다.
↓	
논리적 전개 2	We can become experts in some areas, like speaking a language or knowing our favorite foods, simply by living our lives, but in many other domains <b>expertise requires considerable training and effort</b> . What's more, <b>expertise is domain specific</b> . The expertise that we work hard to acquire in one domain will carry over only imperfectly to related ones, and not at all to unrelated ones. In the end, <b>as much as we may want to become experts on everything in our lives, there simply isn't enough time to do so</b> . Even in areas where we could, <b>it won't necessarily be worth the effort</b> .
↓	
논리적 전개 3 [결론]	1. 전문지식은 상당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2. 전문지식은 영역 한정적이다. 3.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쌓을 시간이 없다. 4. 모든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쌓을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논리적 전개 3 [결론]	It's clear that we should concentrate our own expertise on those domains of choice that are most common and/or important to our lives, and those we actively enjoy learning about and choosing from. 우리는 선택한 영역에 우리의 전문지식을 집중해야 한다.

## 2) 수미쌍괄식 | 필자의 의도로 지문을 시작해서 근거를 잡고 필자의 의도를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2021학년도 수능 24번 제목 유형]

1. 필자의 의도	People don't usually think of <b>touch</b> as a temporal phenomenon, but it is every bit as <b>time-based</b> as it is spatial. 촉각은 모든면에서 전적으로 시간에 기반을 두고 있다.
↓	
2. 근거 및 부연설명	<b>You can carry out an experiment to see for yourself</b> . Ask a friend to cup his hand, palm face up, and close his eyes. Place a small ordinary object in his palm – a ring, an eraser, anything will do – and ask him to identify it without moving any part of his hand. He won't have a clue other than weight and maybe overall size. Then tell him to keep his eyes closed and move his fingers over the object. He'll most likely identify it at once. By allowing the fingers to move, you've added time to the sensory perception of touch. 실험을 통해서 시간이 개입되기 전에는 그는 그 물체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얻을 수 없었으나, 촉각이라는 지각에 시간이 더해지게 된 후 그 물체를 한번에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변화를 보여줌.
↓	
3. 결론 [필자의 의도]	There's a direct analogy between the fovea at the center of your retina and your fingertips, both of which have high acuity. Your ability to make complex use of touch, such as buttoning your shirt or unlocking your front door in the dark, <b>depends on continuous time-varying patterns of touch sensation</b> . 촉각을 사용하는 능력은 촉각이라는 감각의, 지속적인,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패턴에 의존한다.

**3) 통념 → 반박** | 필자는 자신의 의도가 아닌 사회적 통념을 말하고 그에 대한 반박 및 자신의 의도를 말하면서 방향성을 바꾼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연설명을 통해 근거를 잡고 자신의 의도로 결론을 내린다.

**[2016년 모의고사 기출]**

<b>1. 사회적 통념</b>	We tend to assume that the way to get more time is to speed up.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얻는 방법은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제시
↓	
<b>2. 반박 및 필자의 의도</b>	But speeding up can actually slow us down. 역접의 연결어를 통해 반박하고 필자의 의도 제시
↓	
<b>3. 근거 및 부연설명</b>	Anyone who has ever rushed out of the house only to realize that their keys and wallet are sitting on the kitchen table knows this only too well. And it's not just our efficiency that is reduced. The quality of the experience suffers too, as we become less aware or 'mindful.' Have you ever eaten an entire meal without tasting any of it? Hurrying up doesn't just give us less time, it can also steal the pleasure and benefit from the time that we do have. For many of us, hurrying is a way of life. Some of us enjoy the thrill that it gives us while others are driven crazy by the constant pressure and feel that their lives are speeding up to an unacceptable degree. 필자의 의도에 대한 근거로서 서두르면 놓치게 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 언급
↓	
<b>4. 결론[필자의 의도]</b>	Either way, there are almost certainly areas of our life that could be enhanced by a little go-slow behavior. 우리의 삶에는 약간 느린 행동에 의해 강화되는 영역이 있다.

**4. 필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장치가 있다.**

**1) 역접의 연결어(but, however, etc.)를 체크하라!**

역접의 연결어는 글의 흐름의 방향성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글의 흐름이 바뀐다는 것은 필자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2016학년도 수능 34번]**

Long before Walt Whitman wrote Leaves of Grass, poets had addressed themselves to fame. Horace, Petrarch, Shakespeare, Milton, and Keats all hoped that poetic greatness would grant them a kind of earthly immortality. Whitman held a similar faith that for centuries the world would value his poems. **But** to this ancient desire to live forever on the page, he added a new sense of fame.

휘트먼 이전부터 시인들은 명성을 추구하고, 시적 위대함이 명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 희망함.  
**그러나 휘트먼은 여기에 새로운 의미의 명성을 추가함**  
[우리는 휘트먼이 어떤 새로운 의미의 명성을 추구했는지를 찾아야 하고 이것이 필자의 의도다!]

**2) 반복된 어구에 집중하라!**

**필자의 의도가 아니라면 같은 어구가 반복될 필요가 없다.** 비슷한 맥락의 어구가 반복된다면 그것이 필자의 의도다.

**[2019학년도 6월 31번 - 오답률 75.4%]**

Although prices in most retail outlets are set by the retail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se prices \_\_\_\_\_. On any particular day we find that all products have a specific price ticket on them. However, **this price may be different** from day to day or week to week. The price that the farmer gets from the wholesaler is **much more flexible** from day to day than the price that the retailer charges consumers. If, for example, bad weather leads to a poor potato crop, then the price that supermarkets have to pay to their wholesalers for potatoes will go up and this will be reflected in the prices they mark on potatoes in their stores. Thus, these **prices do reflect the interaction of demand and supply** in the wider marketplace for potatoes. Although they do not change in the supermarket from hour to hour to **reflect local variations in demand and supply**, they do change over time to **reflect the underlying conditions of the overall production of and demand for the goods** in question.

가격은 바뀌게 되고 유동적이고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여 변동될 것이라는 어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 3) 앞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다면 앞 문장은 필자의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

영어지문은 짧다. 필자의 의도가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

그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서 필자의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한다.

(예를 들어서, ~학자의 연구는 보여준다 ~, 실험 etc)

[2021학년도 수능 24번]

People don't usually think of touch as a temporal phenomenon, but it is every bit as time-based as it is spatial. **You can carry out an experiment to see for yourself.** Ask a friend to cup his hand, palm face up, and close his eyes. Place a small ordinary object in his palm – a ring, an eraser, anything will do – and ask him to identify it without moving any part of his hand.

이 문장부터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 앞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 필자의 의도가 아니라면 구체적인 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

### 그리고 구체화 진술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정보가 있으면 핵심적인 힌트의 역할을 한다!!

[2021학년도 수능 20번]

Developing expertise carries costs of its own. We can become experts in some areas, like speaking a language or knowing our favorite foods, simply by living our lives, **but** in many other domains expertise requires considerable training and effort. **What's more, expertise is domain specific.** The expertise that we work hard to acquire in one domain will carry over only imperfectly to related ones, and not at all to unrelated ones.

but을 통해 지문의 방향성을 바꾸며 필자의 의도를 말하고 **What's more**를 통해 새롭게 추가되는 정보를 제시하며 필자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구체화 한다.

### 4) 의문문

영어 지문에서 의문문은 결코 필자가 무엇인가를 궁금해 하기 때문이 아니다. 무언가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의문문의 답을 지문에서 찾아야하고 그 답은 필자의 의도이다.

[2017학년도 수능 33번]

Grief is unpleasant. Would one not then be better off without it altogether? **Why accept it even when the loss is real?** Perhaps we should say of it what Spinoza said of regret: that whoever feels it is "twice unhappy or twice helpless." Laurence Thomas has suggested that the utility of "negative sentiments" (emotions like grief, guilt, resentment, and anger, which there is seemingly a reason to believe we might be better off without) lies in their providing a kind of guarantee of authenticity for such dispositional sentiments as love and respect.

슬픔은 유쾌하지 않다. 심지어 상실이 진짜인데도 왜 우리는 슬픔을 받아들이는가?

[필자는 우리가 슬픔을 받아들이는 이유에 대해 글을 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 5) 명령문(should, etc.)

명령문은 당연히 필자의 의도를 담고 있다.

[2021학년도 수능 20번]

It's clear that we **should** concentrate our own expertise on those domains of choice that are most common and/or important to our lives, and those we actively enjoy learning about and choosing from.

# 2021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로 보는 대의파악-주장 유형 분석

2021학년도 20번 문제

20.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Developing expertise carries costs of its own. We can become experts in some areas, like speaking a language or knowing our favorite foods, simply by living our lives, but in many other domains expertise requires considerable training and effort. What's more, expertise is domain specific. The expertise that we work hard to acquire in one domain will carry over only imperfectly to related ones, and not at all to unrelated ones. In the end, as much as we may want to become experts on everything in our lives, there simply isn't enough time to do so. Even in areas where we could, it won't necessarily be worth the effort. It's clear that we should concentrate our own expertise on those domains of choice that are most common and/or important to our lives, and those we actively enjoy learning about and choosing from.

- ① 자신에게 의미있는 영역을 정해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 ② 전문성 함양에는 타고난 재능보다 노력과 훈련이 중요하다.
- ③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④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수적이다.
- ⑤ 전문가는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해석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는 그 자체의 비용이 수반된다. 우리는 언어를 말하거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아는 것과 같은 어떤 분야에서는 그냥 삶을 살아감으로써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많은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상당한 훈련과 노력을 요구한다. 게다가 전문성이란 특정한 영역에만 국한된다. 우리가 한 영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전문성은 관련 영역으로 오직 불안정하게 이어질 뿐이며, 관련이 없는 영역으로는 전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야에 서조차도, 그만큼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흔하고/흔하거나 중요한 선택 영역과 우리가 배우고 선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영역에 우리의 전문성을 집중해야만 하는 것은 분명하다.

## 어휘

expertise 전문성

domain 영역

concentrate 집중하다

## 지문분석

Developing **expertise** carries **costs of its own**.

필자의 의도의 시발점. 첫문장에서 필자는 의도의 시발점으로서 '전문 지식을 개발하는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를 궁금해 해야하고 그것이 필자가 이 문장을 쓴 의도이다.]

We can become experts in some areas, like speaking a language or knowing our favorite foods, simply by living our lives, **but** in many other domains expertise **requires considerable training and effort**.

두 번째 문장에 '우리는 단지 살아감으로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말하지만 but을 넣어 방향성을 바꾼다.  
역접의 연결어 but이 이끄는 부분이 중요해진다. '그러나 다른 많은 영역에서 전문 지식은 상당한 훈련과 노력을 필요로한다.'  
[첫 문장에서 말한 대가가 나온다. 전문지식을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을 한다.]

What's more, expertise is **domain specific**.

이 문장에서 앞문장에 이어서 전문 지식은 상당한 노력과 훈련 외에도 영역 한정적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전문 지식의 특징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필자의 의도가 드러난다 (전문지식은 영역 한정적이다)]

The expertise that we work hard to acquire in one domain will carry over only imperfectly to related ones, and not at all to unrelated ones. In the end, **as much as we may want to become experts on everything in our lives, there simply isn't enough time to do so**. Even in areas where we could, it won't necessarily be worth the effort.

[필자의 의도에 대한 부연설명이다.] 전문지식은 관련된 영역에도 완전하게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모든 영역에서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없고 가질 가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It's clear that we should concentrate our own expertise on those domains of choice** that are most common and/or important to our lives, and those we actively enjoy learning about and choosing from.

마지막 문장에서 결론으로서 should를 사용해 '우리는 우리의 전문 지식을 우리가 선택한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필자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논리전개 1] 전문 지식을 개발하는 것은 대가가 따른다.



[논리전개 2] 전문 지식은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며 영역 한정적이다.



[논리전개 2] 모든영역에서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없다.



[결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문 지식을 선택한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

위의 논리적 mapping 구조의 흐름을 볼 때 필자는 우리가 선택한 영역에 전문 지식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 2021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로 보는 대의파악-신유형 분석



**1. 밑줄 친 부분에 집착하지 마라!**

- 밑줄 친 부분은 필자의 의도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
-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2. 21번 신유형 문제는 대의파악 유형이다.**

-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밑줄 친 부분은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

시험이  
제시하는  
접근 전략

## 2021학년도 21번 문제

21. 밑줄 친 the role of the 'lion's historian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re is an African proverb that says, 'Till the lions have their historians, tales of hunting will always glorify the hunter'. The proverb is about power, control and law making. Environmental journalists have to play the role of the 'lion's historians'. They have to put across the point of view of the environment to people who make the laws. They have to be the voice of wild India. The present rate of human consumption is completely unsustainable. Forest, wetlands, wastelands, coastal zones, eco-sensitive zones, they are all seen as disposable for the accelerating demands of human population. But to ask for any change in human behaviour — whether it be to cut down on consumption, alter lifestyles or decrease population growth — is seen a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But at some point human rights become 'wrongs'. It's time we changed our thinking so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rights of humans and the rights of the rest of the environment.

- ① uncovering the history of a species' biological evolution
- ② urging a shift to sustainable human behaviour for nature
- ③ fighting against widespread violations of human rights
- ④ rewriting history for more underrepresented people
- ⑤ restricting the power of environmental lawmakers

### 해석

“사자들이 자신들의 역사가를 갖게 될 때까지, 사냥 이야기는 언제나 사냥한 자를 미화할 것이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권력, 통제, 법 제정에 관한 것이다. 환경 저널리스트는 ‘사자의 역사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그들은 인도 야생 자연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현재 인간의 소비율은 완전히 지속 불가능하다. 숲, 습지, 황무지, 해안 지대, 환경 민감 지역 모두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수요를 위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소비를 줄이는 것이든,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든, 인구 증가를 줄이는 것이든, 인간의 행동에 어떤 변화든 요구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여겨진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인권은 ‘옳지 않은 것’이 된다. 인간의 권리와 나머지 환경의 권리 사이에 차가 없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때이다.

### 어휘

- |  |   |  |
|--|---|--|
| <input type="checkbox"/> glorify 미화하다, 기리다                     | <input type="checkbox"/> unsustainable 지속 불가능한    | <input type="checkbox"/> violation 침해, 위반      |
| <input type="checkbox"/> put across ~ to ...<br>~을 ...에게 이해시키다 | <input type="checkbox"/> disposable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 <input type="checkbox"/> accelerating 가속화되고 있는 |

## 지문분석

There is an African proverb that says, 'Till the lions have their historians, tales of hunting will always glorify the hunter'.

[논리전개 1] 필자는 첫문장에서 사자가 그들의 역사가를 갖기 전까지는 사냥의 이야기는 항상 사냥을 미화시킬 것 이라는 논리를 언급한다. 이 말에선 약간의 언어적 추론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역사가가 있어야지만 사냥의 미화는 멈춘다.'는 말이 된다.

The proverb is about power, control and law making. Environmental journalists have to play the role of the 'lion's historians'. They have to put across the point of view of the environment to people who make the laws. They have to be the voice of wild India.

[논리전개 2] 환경 저널리스트들이 바로 이 역사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즉 그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 관점을 이해시켜야 하고 야생의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

[언론인들이 역사가의 역할을 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견제해서 자연을 지켜야 한다]

The present rate of human consumption is completely unsustainable. Forest, wetlands, wastelands, coastal zones, eco-sensitive zones, they are all seen as disposable for the accelerating demands of human population. But to ask for any change in human behaviour – whether it be to cut down on consumption, alter lifestyles or decrease population growth – is seen a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논리전개 3] 인간 소비는 완전하게 지속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행위를 바꾸는 것은 인권 침해로 여겨진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 기술했다.

But at some point human rights become 'wrongs'. It's time we changed our thinking so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rights of humans and the rights of the rest of the environment.

[결론] 역점의 연결어 but을 통해 방향성을 바꾸며 이러한 인권은 옳지 않은것이므로 환경을 위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논리전개 1 비유] 사자는 역사가가 있어야 사냥의 미화를 멈춘다.



[논리전개 2] 환경 언론인들이 역사가의 역할을 하여 법 재정하는 사람들을 견제해야 한다.



[논리전개 3] 인간의 소비는 지속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행위를 막는 것은 인권침해일 수 있다.



[결론] 자연을 침해하는 인간의 권리는 잘못된 것이므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밑줄 친 사자의 역사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인간의 잘못된 행위를 바꾸게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번이 된다.

# 2021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로 보는 대의파악-주제 유형 분석

2021학년도 23번 문제

## 2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Difficulties arise when we do not think of people and machines as collaborative systems, but assign whatever tasks can be automated to the machines and leave the rest to people. This ends up requiring people to behave in machine-like fashion, in ways that differ from human capabilities. We expect people to monitor machines, which means keeping alert for long periods, something we are bad at. We require people to do repeated operations with the extreme precision and accuracy required by machines, again something we are not good at. When we divide up the machine and human components of a task in this way, we fail to take advantage of human strengths and capabilities but instead rely upon areas where we are genetically, biologically unsuited. Yet, when people fail, they are blamed.

- ① difficulties of overcoming human weaknesses to avoid failure
- ② benefits of allowing machines and humans to work together
- ③ issues of allocating unfit tasks to humans in automated systems
- ④ reasons why humans continue to pursue machine automation
- ⑤ influences of human actions on a machine's performance

### 해석

사람과 기계를 협업 시스템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동화될 수 있는 작업은 무엇이든 기계에 할당하고 그 나머지를 사람들에게 맡길 때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기계와 같은 방식으로, 즉 인간의 능력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우리는 사람들이 기계를 감시하기를 기대하는데, 이는 오랫동안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계에 의해 요구되는 극도의 정밀함과 정확성을 가지고 반복적인 작업을 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또한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과제의 기계적 구성요소와 인간적 구성요소를 나눌 때, 우리는 인간의 강점과 능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 대신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부적합한 영역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실패할 때, 그들은 비난을 받는다.

### 어휘

- |  |   |  |
|--|---|--|
| <input type="checkbox"/> arise 발생하다                  | <input type="checkbox"/> behave 행동하다              | <input type="checkbox"/> component 구성요소              |
| <input type="checkbox"/> collaborative system 협업 시스템 | <input type="checkbox"/> monitor 감시하다             | <input type="checkbox"/> take advantage of ~ ~을 이용하다 |
| <input type="checkbox"/> assign 할당하다                 | <input type="checkbox"/> keep alert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genetically 유전적으로           |
| <input type="checkbox"/> automate 자동화하다              | <input type="checkbox"/> precision 정밀함            | <input type="checkbox"/> unsuited 부적합한               |
| <input type="checkbox"/> end up -ing 결국 ~하게 되다       | <input type="checkbox"/> accuracy 정확성             |  |

## 지문분석

**Difficulties arise** when we do not think of people and machines as collaborative systems, but assign whatever tasks can be automated to the machines and leave the rest to people.

필자는 첫문장에서 필자의 의도의 시발점으로서, 우리가 우리와 기계를 협업적인 시스템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과 기계의 잘못된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잘못된 관계 정립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해해야 한다.]**

This ends up requiring people to behave in machine-like fashion, in ways that **differ from human capabilities**. We expect people to monitor machines, which means keeping alert for long periods, **something we are bad at**. We require people to do repeated operations with the extreme precision and accuracy required by machines, again **something we are not good at**.

두 번째 문장부터 끝까지 필자는 잘못된 관계정립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능력과 다른 방식의 일을 즉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일을 인간에게 부과함]**

1. 우리에게 끈임없이 기계를 감시하게 함
2.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계에 의해 요구되는 극도의 정밀함과 정확성을 가지고 반복적인 작업을 할 것을 요구

When we divide up the machine and human components of a task in this way, **we fail to take advantage of human strengths and capabilities** but instead rely upon **areas where we are genetically, biologically unsuited**. Yet, when people fail, they are blamed.

**[문제점을 정리하여 결론을 내림]**

우리가 어떤 일의 기계적 구성요소와 인간적 구성요소를 그런식으로 나누어 인간의 강점과 능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영역에만 의존하게 함

**[논리전개 1]** 우리는 인간과 기계의 업무관계를 잘못 정립함.



**[논리전개 2]** 그로인해 우리는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일을 인간에게 부여함.



**[결론]** 결국 우리는 인간의 강점과 능력을 잘 활용하지 못함.

필자는 글의 논리적 흐름을 통해 우리는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은 업무를 맡기고 결국 그로 인해 우리는 인간의 강점과 능력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정답은 ㉓이다.

# 2021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로 보는 대의파악-제목 유형 분석

2021학년도 24번 문제

## 2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eople don't usually think of touch as a temporal phenomenon, but it is every bit as time-based as it is spatial. You can carry out an experiment to see for yourself. Ask a friend to cup his hand, palm face up, and close his eyes. Place a small ordinary object in his palm — a ring, an eraser, anything will do — and ask him to identify it without moving any part of his hand. He won't have a clue other than weight and maybe overall size. Then tell him to keep his eyes closed and move his fingers over the object. He'll most likely identify it at once. By allowing the fingers to move, you've added time to the sensory perception of touch. There's a direct analogy between the fovea at the center of your retina and your fingertips, both of which have high acuity. Your ability to make complex use of touch, such as buttoning your shirt or unlocking your front door in the dark, depends on continuous time-varying patterns of touch sensation.

\*analogy: 유사 \*\*fovea: (망막의) 중심와(窩) \*\*\*retina: 망막

- ① Touch and Movement: Two Major Elements of Humanity
- ② Time Does Matter: A Hidden Essence of Touch
- ③ How to Use the Five Senses in a Timely Manner
- ④ The Role of Touch in Forming the Concept of Time
- ⑤ The Surprising Function of Touch as a Booster of Knowledge

### 해석

사람들은 보통 촉각을 시간의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은 공간적인 만큼 전적으로 시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직접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할 수 있다. 친구에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손을 컵 모양으로 둥그랴게 모아 쥐고, 눈을 감으라고 요청해 보라. 그의 손바닥에 작은 평범한 물건을 올려놓고 — 반지, 지우개, 무엇이든 괜찮다 — 손의 어떤 부분도 움직이지 말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요청해 보라. 그는 무게와 아마 전체적인 크기 외에 다른 어떤 단서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에게 눈을 감은 채로 그 물건 위로 손가락을 움직여보라고 말하라. 그는 거의 틀림없이 그것이 무엇인지 즉시 알아낼 것이다. 손가락이 움직이게 함으로써 촉각이라는 감각적 지각에 시간을 더했다. 망막의 중심에 있는 중심와(窩)와 손가락 끝 사이에 직접적인 유사함이 있는데, 그것 둘 다 예민함이 높다는 것이다. 어둠 속에서 셔츠 단추를 잠그거나 현관문을 여는 것과 같이 촉각을 복잡하게 사용하는 능력은 촉각이라는 감각의, 지속적인,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패턴에 의존한다.

### 어휘

- |   |   |   |
|---|---|---|
| <input type="checkbox"/> temporal 시간의   | <input type="checkbox"/> cup 손을 컵 모양으로 둥그랴게 모아 쥐다 | <input type="checkbox"/> acuity 예민함               |
| <input type="checkbox"/> phenomenon 현상  | <input type="checkbox"/> identify 알아내다, 식별하다      | <input type="checkbox"/> continuous 지속적인          |
| <input type="checkbox"/> every bit 전적으로 | <input type="checkbox"/> clue 단서                  | <input type="checkbox"/> time-varying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
| <input type="checkbox"/> spatial 공간적인   | <input type="checkbox"/> sensory 감각적인             |   |
| <input type="checkbox"/> experiment 실험  | <input type="checkbox"/> perception 지각, 인지        |   |

## 지문분석

People don't usually think of **touch** as a temporal phenomenon, but it is every bit as **time-based** as it is spatial.

### [필자의 의도 제시]

필자는 첫 문장에서 **역접의 but**을 통해 **touch가 모든면에서 time-based**라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상관접속사(as A as B)를 사용해서 필자의 의도를 말할 때는 필자는 B를 강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You can carry out an experiment to see for yourself. Ask a friend to cup his hand, palm face up, and close his eyes. Place a small ordinary object in his palm — a ring, an eraser, anything will do — and ask him to identify it without moving any part of his hand. **He won't have a clue** other than weight and maybe overall size. Then tell him to keep his eyes closed and move his fingers over the object. **He'll most likely identify it at once. By allowing the fingers to move, you've added time to the sensory perception of touch.**

### [부연설명]

두 번째 문장부터 필자의 의도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한 실험을 근거로 시간이 개입되기 전에는 그는 그 물체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얻을 수 없었으나, 촉각이라는 지각에 시간이 더해지게 된 후 그 물체를 한번에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변화를 보여준다.

There's a direct analogy between the fovea at the center of your retina and your fingertips, both of which have high acuity. **Your ability to make complex use of touch, such as buttoning your shirt or unlocking your front door in the dark, depends on continuous time-varying patterns of touch sensation.**

### [결론]

결국 촉각을 복잡하게 사용하는 능력은 촉각이라는 감각의, 지속적인,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패턴에 의존한다는 말로 결론을 내리며 필자의 의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마무리 한다.

[의도] 촉각은 모든면에서 시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근거] 시간이 개입되기 전까지는 단서를 찾을 수 없으나 시간이 더해지면서 물체를 정확하게 인식



[결론] 촉각은 지속적인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패턴에 의존한다.

필자는 첫 문장에서 의도(촉각은 모든 면에서 시간에 기반을 두고 있다)를 언급한 후 실험을 통해 그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필자의 의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촉각은 시간의 패턴에 의도한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으므로 정답은 ㉔번이다.

## 빈칸 유형 [31 - 34번]

### ○ 평가원 출제 방향

1. 글의 핵심적인 내용(필자의 의도)과 글의 논리적 흐름을 고려하여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표현을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2. 빈칸은 2가지 유형으로 출제된다.
  - 1) 글의 핵심적인 내용 및 그에 대한 비유적 표현
  - 2) 핵심 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

### ○ 평가원이 말하는 빈칸 유형을 위한 학습 훈련 방향

1. 빈칸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으면서 **지문의 중심소재 및 주제문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의 중심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빈칸추론 문항의 빈칸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문의 중심 내용 혹은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부 정보와 관련이 있다.
2.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학술적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3. 빈칸추론 문항은 **해당 지문에서 정답과 밀접하게 관련된 단서 또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깊이 있는 어휘 학습 또한 매우 중요하다.** 빈칸을 위한 어휘 학습 시에는 영어 단어와 우리말 뜻 하나만 연결하여 외우는 학습법을 지양하고, 사전을 통해 영어 단어의 다양한 쓰임을 확인하면서 문장과 지문 속에서 해당 어휘의 쓰임을 이해하는 학습을 하도록 해야 한다. 모르는 어휘를 접했을 때 바로 사전이나 해설서를 참고하지 말고 문맥을 통해 의미를 유추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학습 방법이다.

#### 결국 평가원이 강조하는 것은

1. 지문의 논리적 흐름 안에서 필자의 의도를 찾아라.
2. 답의 근거는 반드시 지문 안에 있다.
3. 어휘가 가진 다양한 뜻을 지문 내에서 확인하고 암기해야 한다.

## ○ 이상INT가 제안하는 빈칸 추론 거시적 접근 전략!

## 1. 인정할 건 하고 들어가자!

## 1. 빈칸은 아무데서나 뚫리지 않는다.

- 필자의 핵심의도를 담고 있는 부분 혹은 그에 상응하는 세부내용에서 뚫린다.

## 2. 우리는 출제자가 아니다.

- 출제자가 아닌 이상, 빈칸에 들어갈 정확한 wording을 만들어 낼 수 없다.
- 정확한 wording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생각의 관점을 바꾸자!**
- 들어갈 수 없는 말을 찾아서 지우자! (소거법)

## 2. 실제적 접근 전략

## 1. 지문의 논리적 흐름 체크 및 세부내용 파악

## 2. 필자의 의도 파악

- 3. 빈칸 문장에 선지 대입하며 소거법 사용하여 들어갈 수 없는 말을 지워라.

## 3.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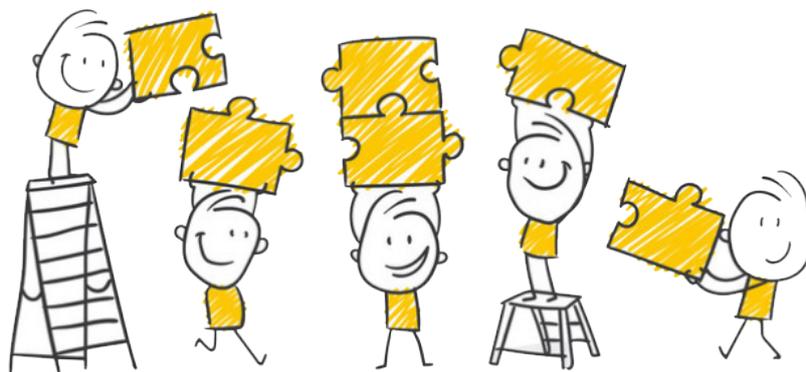
## 1. 지문의 논리적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 2. 필자의 의도는 한번만 들어나지는 않는다.

## 3. 근거는 반드시 지문안에 있다.

## 4. 논리적 장치도 힌트를 준다. (연결어, 대명사)

- 5. 지문의 내용이 두 가지를 비교할때는 공통점 대비 차이점에 집중하라!



# 2021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로 보는 빈칸 유형 분석

2021학년도 31번 문제

3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In the classic model of the Sumerian economy, the temple functioned as an administrative authority governing commodity production, collection, and redistribution. The discovery of administrative tablets from the temple complexes at Uruk suggests that token use and consequently writing evolved as a tool of centralized economic governance. Given the lack of archaeological evidence from Uruk-period domestic sites, it is not clear whether individuals also used the system for \_\_\_\_\_. For that matter, it is not clear how widespread literacy was at its beginnings. The use of identifiable symbols and pictograms on the early tablets is consistent with administrators needing a lexicon that was mutually intelligible by literate and nonliterate parties. As cuneiform script became more abstract, literacy must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ensure one understood what he or she had agreed to.

- ① religious events
- ② personal agreements
- ③ communal responsibilities
- ④ historical records
- ⑤ power shifts

## 해석

수메르 경제의 전형적 모델에서 사원은 상품의 생산, 수집, 그리고 재분배를 관장하는 행정 당국으로서 기능했다. Uruk의 사원 단지에서 나온 행정용 (점토판)의 발견은 상징의 사용, 그리고 결과적으로 글자가 중앙집권화된 경제 지배의 도구로 발달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Uruk 시기 가정집의 터에서 나온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개인들이 또한 사적인 합의를 위해 그 체계를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 문제와 관련하여, 읽고 쓰는 능력이 그것의 초기에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초기의 판에서의 인식 가능한 기호와 그림 문자의 사용은 행정가들이 읽고 쓸 줄 아는 측과 읽고 쓸 수 없는 측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어휘 목록이 필요했던 것과 일치한다. 썩어 문자가 더욱 추상적으로 되면서, 읽고 쓰는 능력이 자신이 합의했던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점점 더 중요해졌음이 틀림없다.

## 어휘

- |   |  |   |
|---|--|---|
| <input type="checkbox"/> <b>administrative</b> 행정의, 관리의 | <input type="checkbox"/> <b>complex</b> (건물) 단지, 복합 건물                   | <input type="checkbox"/> <b>identifiable</b> 인식 가능한         |
| <input type="checkbox"/> <b>authority</b> 당국, 권위, 권한    | <input type="checkbox"/> <b>token</b>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표식으로서의) 상징, 대용 화폐, 기념물 | <input type="checkbox"/> <b>pictogram</b> 그림 문자             |
| <input type="checkbox"/> <b>commodity</b> 상품, 물품        | <input type="checkbox"/> <b>governance</b> 지배, 관리                        | <input type="checkbox"/> <b>consistent with</b> ~와 일치하는     |
| <input type="checkbox"/> <b>redistribution</b> 재분배, 재배포 | <input type="checkbox"/> <b>domestic</b> 가정의, 집안의, 국내의                   | <input type="checkbox"/> <b>intelligible</b>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
| <input type="checkbox"/> <b>tablet</b> 판, 평판(平板)        |  | <input type="checkbox"/> <b>nonliterate</b> 읽고 쓸 수 없는       |

## 지문분석

[이 문제는 빈칸의 두 가지 출처 유형 중 세부내용 파악 유형이다]

In the classic model of the Sumerian economy, **the temple** functioned as an administrative authority governing commodity production, collection, and redistribution.

필자는 첫 문장에서 수메리안 경제에서는 사원이 행정당국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말하면서 사원의 기능을 강조

The discovery of **administrative tablets from the temple** complexes at Uruk suggests that token use and consequently writing evolved as **a tool of centralized economic governance**.

두 번째 문장에서 사원에서 행정적인 tablet(점토판)의 발견이 상장의 사용과 글쓰기가 중앙집권적 경제지배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사원이 글을 통해서 중앙집권화된 행정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Given the lack of archaeological evidence from Uruk-period **domestic sites**, it is not clear whether individuals also used the system for \_\_\_\_\_. For that matter, it is not clear how widespread literacy was at its beginnings.

여기서 사원과 대비되는 관점이 나온다 그것은 바로 domestic sites(가정의 부지)이다.

대비되는 정보를 제시하면서 가정에서는 개인들이 빈칸에 대한 시스템을 사용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한다.

앞서 빈칸의 관점에서 지문이 대비되는 두 가지를 비교할때는 차이점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 지문을 보면 사원과 가정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사원은 글쓰기 체계가 있었고 가정은 글쓰기 체계가 없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확인해야 빈칸에 들어갈 흐름을 알 수 있다.

The use of identifiable symbols and pictograms on the early tablets is consistent with administrators needing a lexicon that was mutually intelligible by literate and nonliterate parties. As cuneiform script became more abstract, literacy must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ensure one understood what he or she had agreed to.

많은 선생님들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 마지막 두 문장이 문제를 푸는데 별 의미가 없었다고 했는데.. 결코 아니다.

이 두 문장이 빈칸에 들어갈 결정적인 힌트를 주고 있다!!

이 두 문장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사원과 가정의 차이(tablet, 즉 글자 체계가 있고 없과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두 문장에서 필자는 초기의 tablet에서 기호와 그림문자의 사용은 행정가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측과 읽고 쓸 수 없는 측이 서로 이해할 어휘 목록이 필요했고, 그리고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자신이 합의했던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말한다.

이 말은 tablet이 있던 사원에서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이 합의했던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반대되는 개념인 가정에서는 tablet이 없으므로 자신이 합의했던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② personal agreements 이 된다.

[나머지 선지는 필자의 의도에서 벗어나 있다.]

① 종교 행사 ③ 공동 책임 ④ 역사적 기록 ⑤ 권력 이동

# 2021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로 보는 빈칸 유형 분석

2021학년도 32번 문제

3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Choosing similar friends can have a rationale. Assessing the survivability of an environment can be risky (if an environment turns out to be deadly, for instance, it might be too late by the time you found out), so humans have evolved the desire to associate with similar individuals as a way to perform this function efficiently. This is especially useful to a species that lives in so many different sorts of environments. However, the carrying capacity of a given environment \_\_\_\_\_. If resources are very limited, the individuals who live in a particular place cannot all do the exact same thing (for example, if there are few trees, people cannot all live in tree houses, or if mangoes are in short supply, people cannot all live solely on a diet of mangoes). A rational strategy would therefore sometimes be to avoid similar members of one's species.

- ① exceeds the expected demands of a community
- ② is decreased by diverse means of survival
- ③ places a limit on this strategy
- ④ makes the world suitable for individuals
- ⑤ prevents social ties to dissimilar members

## 해석

비슷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 어떤 환경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어떤 환경이 치명적인 것으로 판명되면, 그 사실을 알 때쯤에는 너무 늦을 수도 있다), 인간은 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유사한 개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를 진화시켜 왔다. 이것은 매우 다양한 종류의 환경에 사는 종에게 특히 유용하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의 수용 능력은 이 전략에 제한을 둔다. 자원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면, 특정 장소에 사는 개인이 모두 똑같은 것을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나무가 거의 없다면, 사람들이 모두 나무집에 살 수는 없으며, 또는 망고의 공급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모두 오직 망고를 먹는 식단으로만 살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전략은 때때로 자신의 종의 비슷한 구성원을 '피하는' 일일 것이다.

## 어휘

rationale 논리적 근거, 이유  
 assess 평가하다

survivability 생존 가능성  
 associate with ~와 함께하다, ~와 어울리다

carrying capacity 수용 능력, 적재량  
 rational 합리적인, 이성적인

## 지문분석

### [필자의 의도 파악 유형]

Choosing similar friends can have a rationale. Assessing the survivability of an environment can be risky (if an environment turns out to be deadly, for instance, it might be too late by the time you found out), so humans have evolved the desire to associate with similar individuals as a way to perform this function efficiently. This is especially useful to a species that lives in so many different sorts of environments.

필자는 어떤 환경에서는 효율적으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개인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욕구를 진화시켜왔고 특히 다양한 환경에서 하는 종들이 특히나 그러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다양한 환경에서는 비슷한 종이 함께사는 것이 생존가능성을 높여주는 합리적인 전략이다.**

**However**, the carrying capacity of a given environment \_\_\_\_\_.

**However**라는 역접의 연결어를 통해 지문의 방향성을 바꾸고 있다. 그렇다면 빈칸에는 주어진 환경의 수용능력이 가져올 반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앞부분에서는 이 전략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빈칸에는 부정적 느낌의 흐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however**를 통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If resources are very limited, the individuals who live in a particular place cannot all do the exact same thing (for example, if there are few trees, people cannot all live in tree houses, or if mangoes are in short supply, people cannot all live solely on a diet of mangoes). A rational strategy would therefore sometimes be to avoid similar members of one's species.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면 특정 장소에 사는 개인들이 모두 똑같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자신과 비슷한 종의 구성원을 피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다라는 말을 통해 빈칸에 들어갈 의미를 부연 설명하고 있다.

**앞의 환경에서는 합리적이었던 전략이 다른 환경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전략이다라는 것이 필자의 의도로 요약될 수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the carrying capacity of a given environment ㉓ places a limit on this strategy (주어진 환경의 수용능력이 이 전략에 제한을 둔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나머지 선지는 필자의 의도에서 벗어나 있다.]

- ① 공동체의 예상 수요를 초과한다.
- ② 다양한 생존 수단에 의해 감소 된다.
- ④ 세상을 개인들에게 적합하게 만든다.
- ⑤ 비슷하지 않은 구성원과의 사회적 연대를 막는다.

# 2021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로 보는 빈칸 유형 분석

2021학년도 33번 문제

3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anks to newly developed neuroimaging technology, we now have access to the specific brain changes that occur during learning. Even though all of our brains contain the same basic structures, our neural networks are as unique as our fingerprints. The latest developmental neuroscience research has shown that the brain is much more malleable throughout life than previously assumed: it develops in response to its own processes, to its immediate and distant “environments,” and to its past and current situations. The brain seeks to create meaning through establishing or refining existing neural networks. When we learn a new fact or skill, our neurons communicate to form networks of connected information. Using this knowledge or skill results in structural changes to allow similar future impulses to travel more quickly and efficiently than others. High-activity synaptic connections are stabilized and strengthened, while connections with relatively low use are weakened and eventually pruned. In this way, our brains are \_\_\_\_\_ . [3점]

\*malleable: 순응성이 있는 \*\*prune: 잘라 내다

- ① sculpted by our own history of experiences
- ② designed to maintain their initial structures
- ③ geared toward strengthening recent memories
- ④ twinned with the development of other organs
- ⑤ portrayed as the seat of logical and creative thinking

## 해석

새롭게 개발된 신경 촬영 기술 덕분에, 우리는 이제 학습 중에 일어나는 특정한 뇌 변화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들의 뇌 모두는 같은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경망은 우리의 지문만큼이나 독특하다. 가장 최근의 발달 신경 과학 연구는 뇌가 이전에 가정했던 것보다 평생 동안 훨씬 더 순응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것[뇌]은 자기 자신의 처리 과정에, 자신에게 인접한 '환경'과 멀리 떨어진 '환경'에,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 반응하여 발달한다. 뇌는 기존의 신경망을 확립하거나 개선하여 의미를 창조하려고 한다. 우리가 새로운 사실이나 기술을 배울 때, 우리의 뉴런들은 연결된 정보망을 형성하기 위해 소통한다. 이러한 지식이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유사한 자극이 다른 것들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 고 활동성 시냅스 연결이 안정화되고 강화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는 연결은 약해져서 결국에는 잘린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뇌는 우리 자신의 경험의 이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 어휘

- |   |   |   |
|---|---|---|
| <input type="checkbox"/> neuroimaging 신경 촬영 | <input type="checkbox"/> immediate 인접한, 당면한 | <input type="checkbox"/> impulse 자극           |
| <input type="checkbox"/> neural 신경의         | <input type="checkbox"/> establish 확립하다     | <input type="checkbox"/> high-activity 고 활동성의 |
| <input type="checkbox"/> unique 독특한         | <input type="checkbox"/> refine 개선하다        |   |
| <input type="checkbox"/> previously 이전에     | <input type="checkbox"/> existing 기존의       |   |

## 지문분석

Thanks to newly developed neuroimaging technology, we now have access to the specific brain changes that occur during learning. Even though all of our brains contain the same basic structures, our neural networks are as unique as our fingerprints.

필자는 첫 두 문장에서 의도를 말한다. 첫 문장이 필자의 의도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은 3번째 문장에서 구체적인 연구가 나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 진술)  
학습동안 특정한 뇌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의 신경망은 모두 다 다르다.

The latest developmental neuroscience research has shown that the brain is much more malleable throughout life than previously assumed: it develops in response to its own processes, to its immediate and distant “environments,” and to its past and current situations.

앞서 언급한 것처럼 research를 통해 앞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 그러므로 앞부분이 필자의 의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는 2가지에 집중해야 하는데..

▶ 그 중에 첫 번째는 malleable라는 단어다. 평가원은 단어의 다의적 의미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malleable라는 단어는 EBS도 해설하면서 순응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순응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접할 때, 무언가를 잘 받아드리는 이런 느낌으로 보기 쉬우나 반드시 알아둬라!! 순응성이라는 느낌은 ‘잘 변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로 느껴져야 한다는 것을!!! (단어 공부 빠지게 하자!!^^).

▶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정보가 추가된다는 것이다. (to its past and current situations) (앞서 필자의 의도 파악 설명에서 구체적인 진술속에 추가적인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면 반드시 체크하라고 강조했다. 이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의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을 통해 필자는 학습동안 뇌가 변하는데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 반응하여 변한다는 구체적인 필자의 의도를 확립시킨다.

The brain seeks to create meaning through establishing or refining existing neural networks.

필자는 이 문장을 통해서 필자의 핵심의도(과거와 현재에 반응해서 변한다)를 파악하지 못했을까봐 다시한번 강조하고 있다. 뇌는 신경망을 확립하거나 기존의 이미 확립된 신경망(refining existing neural networks)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한다.

When we learn a new fact or skill, our neurons communicate to form networks of connected information. Using this knowledge or skill results in structural changes to allow similar future impulses to travel more quickly and efficiently than others. High-activity synaptic connections are stabilized and strengthened, while connections with relatively low use are weakened and eventually pruned. In this way, our brains are \_\_\_\_\_.

이 문장 부터는 부연설명이다. 우리는 이미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필자의 핵심의도를 담고 있는 ① sculpted by our own history of experiences 임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선지들은 필자의 의도에서 벗어나 있다]

② 그것의 최초의 구조를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③ 최근의 기억을 강화하도록 조정된다.

④ 다른 기관의 발달과 밀접히 연결된다.

⑤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장소로 그려진다.

# 2021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로 보는 빈칸 유형 분석

2021학년도 34번 문제

3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Successful integration of an educational technology is marked by that technology being regarded by users as an unobtrusive facilitator of learning, instruction, or performance. When the focus shifts from the technology being used to the educational purpose that technology serves, then that technology is becoming a comfortable and trusted element, and can be regarded as being successfully integrated. Few people give a second thought to the use of a ball-point pen although the mechanisms involved vary – some use a twist mechanism and some use a push button on top, and there are other variations as well. Personal computers have reached a similar level of familiarity for a great many users, but certainly not for all. New and emerging technologies often introduce both fascination and frustration with users. As long as \_\_\_\_\_ in promoting learning, instruction, or performance, then one ought not to conclude that the technology has been successfully integrated – at least for that user. [3점]

\*unobtrusive: 눈에 띄지 않는

- ① the user successfully achieves familiarity with the technology
- ② the user's focus is on the technology itself rather than its use
- ③ the user continues to employ outdated educational techniques
- ④ the user involuntarily gets used to the misuse of the technology
- ⑤ the user's preference for interaction with other users persists

## 해석

교육 기술의 성공적인 통합은 그 기술이 사용자에게 의해 학습이나 교육, 또는 수행의 눈에 띄지 않는 촉진자로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용되고 있는 기술에서 기술이 이바지하는 교육적 목적으로 초점이 옮겨갈 때, 그 기술은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통합되고 있다고 여겨질 수 있다. (볼펜들 중) 어떤 것들은 돌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또 어떤 것들은 위에 달린 누름단추를 사용하며, 그리고 다른 변형된 방법들도 있을 정도로 그 구조가 다양하지만, 볼펜 사용법에 대해 재고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개인용 컴퓨터는 아주 많은 사용자들에게 (볼펜과) 비슷한 수준의 친숙함에 도달했지만, 분명 모두에게 그렇지 않다. 새롭고 떠오르는 기술은 흔히 사용자들에게 매력과 좌절감을 동시에 경험하게 한다. 학습, 교육 또는 수행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의 초점이 기술의 사용이 아니라 기술 그 자체에 맞춰져 있는 한, 적어도 그 사용자에게는 그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 어휘

- |   |   |   |
|---|---|---|
| <input type="checkbox"/> integration 통합   | <input type="checkbox"/> vary 다양하다        | <input type="checkbox"/> frustration 좌절 |
| <input type="checkbox"/> facilitator 촉진자  | <input type="checkbox"/> variation 변형, 변화 | <input type="checkbox"/> promote 촉진하다   |
| <input type="checkbox"/> serve 이바지하다      | <input type="checkbox"/> familiarity 친숙함  |   |
| <input type="checkbox"/> mechanism 구조, 방법 | <input type="checkbox"/> fascination 매력   |   |

## 지문분석

### (필자의 의도 파악 유형)

Successful integration of an educational technology is marked by that technology being regarded by users as an unobtrusive facilitator of learning, instruction, or performance.

필자는 첫 문장에서 교육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하려면 학습이나 교육 그리고 수행에서 기술이 눈에 띄지 않는 촉진자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교육기술의 성공적인 통합 = 기술이 그 과정에서 눈에 띄지 않는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When the focus shifts from the technology being used to the educational purpose that technology serves, then that technology is becoming a comfortable and trusted element, and can be regarded as being successfully integrated.

필자는 이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첫문장은 필자의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기술이 이바지하는 교육적 목적으로 초점이 옮겨간다 = 눈에 띄지 않는 촉진자의 역할**

Few people give a second thought to the use of a ball-point pen although the mechanisms involved vary — some use a twist mechanism and some use a push button on top, and there are other variations as well. Personal computers have reached a similar level of familiarity for a great many users, but certainly not for all. New and emerging technologies often introduce both fascination and frustration with users.

처음 두 문장에 대한 예시를 들며 필자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1. 볼펜의 다양한 사용방법이 있지만, 볼펜 사용법에 대해 제고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 기술이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초점이 옮겨가며 눈에 띄지 않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

2. 개인용컴퓨터는 모두에게 볼펜만큼 친숙하지는 않다.

(→ 새로운 기술은 아직 모두에게 눈에 띄지 않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As long as \_\_\_\_\_ in promoting learning, instruction, or performance, then one ought not to conclude that the technology has been successfully integrated — at least for that user.

필자의 의도로 보아,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되려면 기술이 사용자의 초점에 맞춰져서 친숙해지고 눈에 띄지 않는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빈칸에서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고 결론을 내릴수 없으려면 기술이 사용자의 초점에 맞춰지지 않아 익숙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때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 the user's focus is on the technology itself rather than its use 이 가장 적절하다.



## CHAPTER 2

---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어법, 어휘추론]

# 어법 유형 [29번]

## ○ 평가원 출제 방향

평가원이 중요하게 평가하는 어법 요소는 4가지이다.

1. 연결사
2. 준동사
3. 형용사 / 부사
4. 수일치

※ 1~2번 유형이 어법 출제 비중의 약 70%를 넘게 차지한다.

## ○ 이상인T가 제안하는 접근 전략!

### 1.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최소한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단위의 문법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 1.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최소한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단위의 문법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 1) 문장의 구성성분 → (보어 : 형용사 / 부사 유형)
  - 2) 구와 절 (구 : 준동사, 절 : 연결사(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 (연결사, 준동사 유형)
- ※ 문장을 분석하는 단위의 문법을 정리하면 어법문제 뿐만 아니라 문장 독해에도 큰 도움이 된다.
- (이상인T 문장의 구조론 : 정확하게 이 목적에 부합하는 문법 강의^^)

### 1. 연결사 유형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관련 유형]

1. Experimental results derived from a single subject are, therefore, of limited value; there is no way to know ⑤ what the subject's responses are typical or atypical of the response of humans as a group. [2021학년도 수능]

2. The dual expressions of this tendency are anthropomorphism (the practice of regarding animals as humans) and totemism (the practice of regarding humans as animals), both of ③ which spread through the visual art and the mythology of primitive cultures. [2020학년도 수능]

3. An Egyptian sculpture no bigger than a person's hand is more monumental than that gigantic pile of stones ④ that constitutes the war memorial in Leipzig, for instance. [2019학년도 수능]

※ 연결사(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의 쓰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 2. 준동사 유형

1. Scientists who experiment on themselves can, functionally if not legally, avoid the restrictions ① associated with experimenting on other people. [2021학년도 수능]
2. Speculations about the meaning and purpose of prehistoric art ① rely heavily on analogies drawn with modern-day hunter-gatherer societies. [2020학년도 수능]
3. When considered in this light, the visual preoccupation of early humans with the nonhuman creatures ④ inhabited their world becomes profoundly meaningful. [2020학년도 수능]

※ 대부분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묻는 문제와 수동과 능동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 리차드 제 2공식을 활용한다!  
리차드 제 2공식 = 동사의 개수 1 = 연결사의 개수(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 3. 형용사 / 부사 유형

1. Nonetheless, experimenting on oneself remains ③ deeply problematic. [2021학년도 수능]
2. The provision of that type of feedback can be interpreted as shifting the emphasis to demonstrating superior performance but not ③ necessarily excellence. [2021학년도 9평]

※ 형용사 / 부사 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어의 역할과 쓰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 4. 수일치 유형

1. One obvious drawback is the danger involved: knowing that it exists ④ does nothing to reduce it. [2021학년도 수능]
2. Many modern structures exceed ③ those of Egypt in terms of purely physical size. [2019학년도 수능]

※ 동사와 대명사의 수일치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 2021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로 보는 어법 유형 분석

2021학년도 29번 문제

## 2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3점]

Regulations covering scientific experiments on human subjects are strict. Subjects must give their informed, written consent, and experimenters must submit their proposed experiments to thorough examination by overseeing bodies. Scientists who experiment on themselves can, functionally if not legally, avoid the restrictions ①associated with experimenting on other people. They can also sidestep most of the ethical issues involved: nobody, presumably, is more aware of an experiment's potential hazards than the scientist who devised ②it. Nonetheless, experimenting on oneself remains ③deeply problematic. One obvious drawback is the danger involved: knowing that it exists ④does nothing to reduce it. A less obvious drawback is the limited range of data that the experiment can generate. Human anatomy and physiology vary, in small but significant ways, according to gender, age, lifestyle, and other factors. Experimental results derived from a single subject are, therefore, of limited value; there is no way to know ⑤what the subject's responses are typical or atypical of the response of humans as a group.

### 해석

인간 피험자에 관한 과학 실험을 다루는 규정은 엄격하다. 피험자는 충분한 설명에 입각한 서면으로 된 동의를 해야 하고, 실험자는 자신들의 계획된 실험을 제출해 감독 기관에 의한 철저한 정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자신을 실험하는 과학자들은, 법률적으로는 아니지만, 기능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실험하는 것과 관련된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도 대부분 피할 수 있다. 실험을 고안한 과학자보다 그것의 잠재적인 위험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실험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 한 가지 명백한 문제점은 (실험에) 수반되는 위험이다.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덜 명백한 문제점은 실험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데이터의 제한된 범위이다.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는 성별, 나이, 생활 방식, 그리고 기타 요인에 따라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각기 다르다. 따라서, 단 한 명의 피험자로부터 얻어진 실험 결과는 가치가 제한적이며, 피험자의 반응이 집단으로서의 인간 반응의 전형적인 것인지 이례적인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

### 어휘

- |   |  |  |
|---|--|--|
| <input type="checkbox"/> regulation 규정, 규제  | <input type="checkbox"/> sidestep 피하다        | <input type="checkbox"/> generate 만들어내다, 발생시키다 |
| <input type="checkbox"/> strict 엄격한         | <input type="checkbox"/> presumably 아마, 짐작건대 | <input type="checkbox"/> derive 얻다, 끌어내다       |
| <input type="checkbox"/> oversee 감독하다       | <input type="checkbox"/> potential 잠재적인      | <input type="checkbox"/> typical 전형적인, 대표적인    |
| <input type="checkbox"/> functionally 기능적으로 | <input type="checkbox"/> hazard 위험           | <input type="checkbox"/> atypical 이례적인         |
| <input type="checkbox"/> restriction 규제, 제한 | <input type="checkbox"/> devise 고안하다, 생각해내다  |  |
| <input type="checkbox"/> associated 관련된     | <input type="checkbox"/> drawback 문제점, 결점    |  |

## 지문분석

Scientists who experiment on themselves can, functionally if not legally, avoid the restrictions ①associated with experimenting on other people.

①번은 준동사에 밑줄이 있으므로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확인해보면 동사 2개(experiment, avoid) 연결사 1개(who)로 이루어진 문장구조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동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밑줄 친 ①associated는 동사가 아닌 앞의 the restrictions을 꾸며 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분사가 와야 하는 자리가 된다. 그러면 분사의 능동의 형태가 필요한지 수동의 형태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하는데, associated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수동의 형태가 와야 한다. 그러므로 ①associated는 과거분사로서 제대로 들어가 있다.

They can also sidestep most of the ethical issues involved: nobody, presumably, is more aware of an experiment's potential hazards than the scientist who devised ②it.

②번은 it에 밑줄이 있으므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2가지이다. (대명사 it의 수일치, 재귀대명사의 필요 유무) 먼저 대명사 it이 가리키는 명사는 단수인 an experiment 이므로 it이 들어가는게 맞고 밑줄 친 it 앞의 devised를 기준으로 주어(the scientist)와 목적어(it)가 다르기 때문에 it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

Nonetheless, experimenting on oneself remains ③deeply problematic.

③번은 부사에 밑줄이 있으므로 [형용사 / 부사]를 묻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용사 / 부사] 유형에 출제되는 2형식 동사와 5형식 동사는 암기하는 것이 좋다. 앞의 동사가 remain인데 이 동사는 2형식을 이끄는 동사이므로 뒤에 보어가 나와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fake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 remain 바로뒤에 무조건 보어인 형용사가 나와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한 단어 뒤를 보면 problematic이 형용사로서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밑줄 친 deeply는 부사로서 뒤의 형용사 problematic를 제대로 꾸며주고 있다.

One obvious drawback is the danger involved: knowing that it exists ④does nothing to reduce it.

④번은 does에 밑줄이 있는데 보통 do, does, did에 밑줄이 있다면 2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수일치와 대동사 판별) 이 문장에서 (;)이 있으므로 두문장처럼 생각해도 된다. 그러면 ④번이 포함된 문장은 knowing이 동명사로서 that이 이끄는 절(that it exist)를 목적으로 취하고 밑줄친 does 부분이 동사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대동사는 아니니 수일치를 확인해보면 동명사가 주어를 이끌고 있으므로 does가 제대로 들어가 있다.

Experimental results derived from a single subject are, therefore, of limited value; there is no way to know ⑤what the subject's responses are typical or atypical of the response of humans as a group.

⑤번 what은 연결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이므로 what이 이끄는 절은 무조건 성립하면 안된다(명사의 자리 한자리가 빠져야 한다). 뒷절을 확인해보면 주어(the subject's responses)가 나오고 be동사뒤에 보어(typical or atypical ~)가 나오므로 성립하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 어휘 유형 [30번]

### ○ 평가원 출제 방향

문맥에 알맞은 어휘를 사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다양한 소재의 글을 읽으며 글의 전체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여 어휘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1. 사실 수능 유형 중 가장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유형 중 하나이다.

지문의 자연스러운 흐름상 어색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어휘를 골라내는 유형이 주로 출제



2013년을 기점으로 수능에 논리적 추론이 강조되면서,  
선지 앞 뒤문장에서 선지에 대한 근거를 찾는 흐름으로 전환

사실 이 두 가지 유형이 지금까지도 대부분 출제

#### 2. 평가원은 다시금 출제 방향성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

[2018학년도 수능 29번 - 오답률 67.6%]

2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Some prominent journalists say that archaeologists should work with treasure hunters because treasure hunters have accumulated valuable historical artifacts that can reveal much about the past. But archaeologists are not asked to cooperate with tomb robbers, who also have valuable historical artifacts. The quest for profit and the search for knowledge cannot coexist in archaeology because of the ① time factor. Rather incredibly, one archaeologist employed by a treasure hunting firm said that as long as archaeologists are given six months to study shipwrecked artifacts before they are sold, no historical knowledge is ② found! On the contrary, archaeologists and assistants from the INA (Institute of Nautical Archaeology) needed more than a decade of year-round conservation before they could even ③ catalog all the finds from an eleventh-century AD wreck they had excavated. Then, to interpret those finds, they had to ④ learn Russian, Bulgarian, and Romanian, without which they would never have learned the true nature of the site. Could a “commercial archaeologist” have ⑤ waited more than a decade or so before selling the finds?

**역대 어휘 유형 오답률 1위 문항이다.** 많은 학생들이 ①번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앞 뒤 문장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많이 당황했던 문제이다. **지문의 끝까지 읽어 내려가면서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나서야 ①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문항이다.**

## ○ 이상인T가 제안하는 접근 전략!

1. 당연한 얘기이지만, 어휘력을 길러야 한다. 특히 암기할 때 유의어 반의어를 함께 외우면 좋다. 처음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듯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어휘 암기속도가 빨라진다.
2. 지문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3. ①번 선지의 근거를 찾을 수 없더라도 당황하지 마라!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얘기이다!



# 2021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로 보는 어휘 유형 분석

2021학년도 30번 문제

3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How the bandwagon effect occurs is demonstrated by the history of measurements of the speed of light. Because this speed is the basis of the theory of relativity, it's one of the most frequently and carefully measured ①quantities in science. As far as we know, the speed hasn't changed over time. However, from 1870 to 1900, all the experiments found speeds that were too high. Then, from 1900 to 1950, the ②opposite happened — all the experiments found speeds that were too low! This kind of error, where results are always on one side of the real value, is called “bias.” It probably happened because over time, experimenters subconsciously adjusted their results to ③match what they expected to find. If a result fit what they expected, they kept it. If a result didn't fit, they threw it out. They weren't being intentionally dishonest, just ④influenced by the conventional wisdom. The pattern only changed when someone ⑤lacked the courage to report what was actually measured instead of what was expected.

\* bandwagon effect: 편승 효과

## 해석

편승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빛의 속도 측정의 역사로 입증된다. 이 속도는 상대성 이론의 기초이기 때문에, 과학에서 가장 빈번하고 면밀하게 측정된 물리량 중 하나이다. 우리가 아는 한, 빛의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1870년부터 1900년까지 모든 실험에서 너무 빠른 속도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나서, 1900년부터 1950년까지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 모든 실험에서 너무 느린 속도가 발견되었다! 결과치가 항상 실제 값의 한쪽에 있는 이런 종류의 오류를 ‘편향’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실험자들이 자신들이 발견할 것이라 예상한 것과 일치하도록 잠재의식적으로 결과를 조정했기 때문에 생겨났을 것이다. 결과가 그들이 예상한 것과 부합하면, 그들은 그것을 유지했다. 결과가 부합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것을 버렸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부정직한 게 아니었고, 단지 일반 통념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뿐이다. 그 패턴은 누군가가 예상된 것 대신에 실제로 측정된 것을 보고할 용기가 부족했을(→ 있었을) 때에야 바뀌었다.

## 어휘

- demonstrate 입증하다, 보여주다
- subconsciously 잠재의식적으로
- conventional wisdom 일반 통념
- measurement 측정, 치수, 크기
- adjust 조정하다
- relativity 상대성
- match 일치하다

## 지문분석

How the bandwagon effect occurs is demonstrated by the history of measurements of the speed of light. Because this speed is the basis of the theory of relativity, it's one of the most frequently and carefully measured ①quantities in science.

①번 선지에 나오는 quantities는 앞 뒤 문장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당황하지 마라. 평가원의 출제 트릭 중 하나이다.

As far as we know, the speed hasn't changed over time. However, from 1870 to 1900, all the experiments found speeds that were too high. Then, from 1900 to 1950, the ②opposite happened — all the experiments found speeds that were too low!

②번 앞 부분에서는 속도가 빠르다고 말하고 ②번 뒷 부분에서는 속도가 느리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②번 opposite은 반대를 나타내면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진다.

This kind of error, where results are always on one side of the real value, is called "bias." It probably happened because over time, experimenters subconsciously adjusted their results to ③match what they expected to find. If a result fit what they expected, they kept it. If a result didn't fit, they threw it out.

③번 앞부분에서 편향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실험자들이 잠재의식적으로 그들의 결과를 조정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그들의 발견하기로 예상하는 것과 맞추기 위해서라고 ③번의 match를 썼으며 그 뒷부분에서도 만약 결과가 그들이 예상한것에 적합하다면 유지하고 아니면 버렸다고 했으므로 ③번은 흐름상 자연스럽다.

They weren't being intentionally dishonest, just ④influenced by the conventional wisdom.

그들이 의도적으로 부정직한 것이 아니라 관습적 통념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④번도 흐름상 자연스럽다.

The pattern only changed when someone ⑤lacked the courage to report what was actually measured instead of what was expected.

관습적 통념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생긴 패턴이 바뀌는 것은 누군가가 용기가 부족 했을때가 아니라 용기가 있었을때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번 lacked(부족했다)를 had(가지고 있었다)와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한다.



## CHAPTER 3

---

가져쓰기 유형  
논리적이고 일관된 흐름

[흐름, 순서, 삽입 유형]

□ 간접쓰기 유형에서 평가원의 평가요소는 명확하다

통일성 (unity)

일관성(coherence)

응집성(cohesion)

→ 논리적으로 일관된 흐름을 가진 지문이라는 의미이다

□ 이 유형의 핵심 키워드는 “단절”이다.

이 유형은 자연스러운 해석의 흐름으로 푸는 유형이 아니다.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쓰여지는 글의 흐름에서 “단절”을 찾아내야 한다

□ 출제자는 명확한 단절의 근거를 잡기 위해 2가지의 단절요소를 사용한다.

1. 논리적 장치로서의 단절

- 논리적 장치 : 연결어, 대명사, 관사, 흐름을 나타내는 부사
- 우리는 논리적 장치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2. 논리적 흐름에서의 단절

- 일관된 글의 논리적 흐름을 가진 지문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 새로운 정보가 제시되려면 반드시 새로운 정보가 제시될 토대가 있어야 한다.
- 무언가 결론을 내리고 판단하려면 반드시 그 명확한 근거가 앞문장에 제시되어야 한다.

## 흐름과 무관한 문장 유형

[35번]

○ 이상인T가 제안하는 접근 전략!

1. 첫 문장부터 ①번 문장까지에서 글의 소재와 방향성을 잡는다.

①번이 정답이 되는 경우는 없다.

2. ②번 문장부터 지문의 일관된 방향성에서 벗어나는 문장을 체크한다.

유념해야 할 부분은 정답인 선지조차 글의 소재를 담고 있는 단어를 언급한다.

3. 정답을 체크하고나면 반드시 그 다음 선지까지는 확인한다.

만약 체크한 선지가 정답이라면 다음 선지는 다시 필자의 의도한 방향성으로 돌아가야 한다.

4. 때로는 한 문장이 필자의 방향성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다음 문장과 합쳐져서 한 방향성을 말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2021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로 보는 흐름 무관 유형 분석

2021학년도 35번 문제

## 35.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Workers are united by laughing at shared events, even ones that may initially spark anger or conflict. Humor reframes potentially divisive events into merely “laughable” ones which are put in perspective as subservient to unifying values held by organization members. Repeatedly recounting humorous incidents reinforces unity based on key organizational values. ① One team told repeated stories about a dumpster fire, something that does not seem funny on its face, but the reactions of workers motivated to preserve safety sparked laughter as the stories were shared multiple times by multiple parties in the workplace. ② Shared events that cause laughter can indicate a sense of belonging since “you had to be there” to see the humor in them, and non-members were not and do not. ③ Since humor can easily capture people’s attention, commercials tend to contain humorous elements, such as funny faces and gestures. ④ Instances of humor serve to enact bonds among organization members. ⑤ Understanding the humor may even be required as an informal badge of membership in the organization.

### 해석

직원들은 공유된 사건, 심지어 처음에는 분노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웃음으로써 단합된다. 유머는 어쩌면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을,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간직되는 통합 가치에 도움이 된다고 (제대로) 이해되는 그저 ‘재미있는’ 사건으로 재구성한다. 유머러스한 사건들을 되풀이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면 조직의 핵심 가치에 근거를 둔 단합이 강화된다. 어떤 팀이 대형 쓰레기 수납기 화재에 관한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재미있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이야기가 직장의 여러 당사자에 의해 여러 번 공유되면서 안전을 지켜야 하겠다는 동기를 부여받게 된 직원들의 반응이 웃음을 자아냈다. 웃음을 유발하는 공유된 사건은 소속감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그 사건 속의 유머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은 그곳에 있어야 했고’ 조직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기에[그곳에 없었기에] 그러지 못하기[유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머는 사람들의 관심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광고 방송은 웃긴 얼굴과 몸짓 같은, 유머러스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유머의 사례는 조직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심지어 유머를 이해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임을 나타내는 비공식적 신분증으로 요구될 수도 있다.

## 지문분석

Workers are united by laughing at shared events, even ones that may initially spark anger or conflict. Humor reframes potentially divisive events into merely “laughable” ones which are put in perspective as subservient to unifying values held by organization members. Repeatedly recounting humorous incidents reinforces unity based on key organizational values.

첫 3문장에서 필자는 직원들은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공유된 사건에 대해서 웃음으로 단합이 된다고 말하며 이 사건을 되풀이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면 조직의 핵심 가치에 근거를 단합이 강화된다고 말한다.

◇ 소재 : 공유된 이야기, 단합

◇ 방향성 : 조직내에서 공유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웃음으로 조직의 단합을 강화시킨다.

① One team told repeated stories about a dumpster fire, something that does not seem funny on its face, but the reactions of workers motivated to preserve safety sparked laughter as the stories were shared multiple times by multiple parties in the workplace.

필자의 방향성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떤 팀 내의 쓰레기 수납기 화재의 이야기를 되풀이 하는 것을 통해 웃음을 유발한다고 말하고 있다.

② Shared events that cause laughter can indicate a sense of belonging since “you had to be there” to see the humor in them, and non-members were not and do not.

웃음을 유발하는 공유된 사건은 소속감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하며 그 유머를 이해하려면 조직의 구성원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앞 문장과 합쳐져서 필자의 방향성을 완성하고 있다)

③ Since humor can easily capture people’s attention, commercials tend to contain humorous elements, such as funny faces and gestures.

유머는 사람들과 관심을 사로잡기 때문에 광고는 유머러스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필자의 소재 (유머)를 담고 있지만 조직내의 소속감, 단합의 방향성이 아닌 다른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④ Instances of humor serve to enact bonds among organization members.

이 문장에서 다시 유머가 조직 멤버들의 유대감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다시 필자의 방향으로 돌아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③번 선지가 필자의 의도에서 벗어나 있음을 확인한다.

⑤ Understanding the humor may even be required as an informal badge of membership in the organization.

## 순서 유형 [36 - 37번]

### ○ 평가원의 평가 요소

본 유형은 쓰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유형으로, 좋은 글쓰기를 위해 필요한 통일성, 일관성, 응집성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한다. 단락이나 문장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글의 논리적 흐름을 완성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 ○ 순서 유형의 논리적 접근 방향

1. 문장 순서는 문장 삽입보다 지극히 더 논리적인 싸움이 치열한 곳이다.
2. 문장 순서는 제시문 뒤에 어떤 것이 오게 자연스러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3. 문장 순서는 소거법을 사용해야 한다.
  - 1) 제시문 뒤에는 논리적인 이유로 올 수 있는 것은 하나 밖에 없다.
  - 2) 올 수 없는 것을 찾아서 지워야 한다.
4. 지문을 단순하게 생각하라.
  - 1) 새로운 정보가 제시될 때는 반드시 그 정보가 제시될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친구와 점심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A) 의사는 친구에게 급하게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B)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친구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데려갔다.  
 (C) 수술 중에 의사가 큰 실수를 했다.

1. 제시문 뒤에 A는 올 수 없다.  
A에는 의사라는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는데 제시문에는 의사가 등장할만한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다.
2. 제시문 뒤에 C는 올 수 없다.  
C에는 수술과 의사라는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는데 제시문에는 이 정보가 등장할 만한 토대가 제시되지 않았다.

### 2) 지문은 단순하게 생각하라.

- ☆ 선지가 질문으로 끝나면 다음에 올 선지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해야 한다.
- ☆ 선지의 첫 문장이 『몇시간 뒤에 Jack 되돌아 왔다.』라고 시작하면, 그 앞에 올 선지의 내용은 Jack이 나가서의 상황이 나와야 한다.

## ○ 이상인T가 제안하는 순서 유형의 실전적 접근 방향

**1. 제시문을 분석하라.**

- 문장 순서의 제시문은 삽입의 제시문 만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다.

**2. (A), (B), (C)의 각 한 문장씩 읽고 제시문 바로 뒤에 들어갈 수 없는 논리적 근거를 찾아서 지워라.**

- 제시문 다음에 올 문장은 제시문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연결어, 대명사, 흐름을 나타내는 부사 (also, such등)의 장치를 활용하라

**3. 지워질 수 없는 하나 (예를 들어 (C))가 남는다면 (C)를 끝까지 읽어라.****4. 남은 두 개 중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찾아서 지워라.**

※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상황별 구체적 세부적 접근 전략도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 2021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로 보는 순서 유형 분석

2021학년도 36번 문제

36.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objective of battle, to “throw” the enemy and to make him defenseless, may temporarily blind commanders and even strategists to the larger purpose of war. War is never an isolated act, nor is it ever only one decision.

(A) To be political, a political entity or a representative of a political entity, whatever its constitutional form, has to have an intention, a will. That intention has to be clearly expressed.

(B) In the real world, war’s larger purpose is always a political purpose. It transcends the use of force. This insight was famously captured by Clausewitz’s most famous phrase, “War is a mere continuation of politics by other means.”

(C) And one side’s will has to be transmitted to the enemy at some point during the confrontation (it does not have to be publicly communicated). A violent act and its larger political intention must also be attributed to one side at some point during the confrontation. History does not know of acts of war without eventual attribution.

## 해석

전투의 목표, 즉 적군을 ‘격멸하고’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것은 일시적으로 지휘관과 심지어 전략가까지도 전쟁의 더 큰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전쟁은 결코 고립된 행위가 아니며, 또한 결코 단 하나의 결정도 아니다.

(A) 정치적으로 되려면, 정치적 실체나 정치적 실체의 대표자는, 체제상의 형태가 무엇이든지, 의도, 즉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 의도는 분명히 표현되어야 한다.

(B) 현실 세계에서 전쟁의 더 큰 목적은 항상 정치적 목적이다. 그것은 물리력의 사용을 초월한다. 이 통찰은 “전쟁은 다른 수단으로 단지 정치를 계속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한 Clausewitz의 가장 유명한 한마디에 의해 멋지게 포착되었다.

(C) 그리고 한쪽의 의지는 대치하는 동안 어느 시점에 적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그것이 공개적으로 전달될 필요는 없다). 폭력 행위와 그것의 더 큰 정치적 의도 또한 대치하는 동안 어느 시점에 한쪽의 뜻으로 돌려져야 한다. 역사는 궁극적인 귀인이 없는 전쟁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

## 지문분석

The objective of battle, to “throw” the enemy and to make him defenseless, may temporarily blind commanders and even strategists to the larger purpose of war. War is never an isolated act, nor is it ever only one decision.

(A) To be political, a political entity or a representative of a political entity, whatever its constitutional form, has to have an intention, a will. That intention has to be clearly expressed.

To be political에서 political이라는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A)가 제시문 다음에 오려면 제시문에 이 정보가 등장할 만한 토대가 있어야 하는데 제시문에는 그 근거가 없으므로 (A)는 제시문 뒤에 올 수 없다.

(B) In the real world, war’s larger purpose is always a political purpose. It transcends the use of force. This insight was famously captured by Clausewitz’s most famous phrase, “War is a mere continuation of politics by other means.”

제시문에서는 적을 섬멸시키려는 목적은 전쟁의 더 큰 목적을 가린다고 했고 (B)에서 더 큰 목적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B)가 제시문 뒤에 나올 개연성이 커진다. 그리고 (B)가 제시문 뒤에 나올 수 없다는 논리적 장치도 없다.

(C) And one side’s will has to be transmitted to the enemy at some point during the confrontation (it does not have to be publicly communicated). A violent act and its larger political intention must also be attributed to one side at some point during the confrontation. History does not know of acts of war without eventual attribution.

(C)의 앞부분에서 보면 And one side’s 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글의 논리적 흐름 상 앞 문장에는 한쪽의 ‘의지’라는 표현이 나올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시문에는 그 근거가 없으므로 (C)는 제시문 뒤에 나올 수 없다.

위 방식대로 분석해보면 제시문 다음에는 (B)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B)뒤에는 (C)가 나올 수 없다. 그 이유는 (C)가 제시문 뒤에 나올 수 없는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순서는 (B) - (A) - (C)의 순서가 나와야 함을 알 수 있다.

# 2021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로 보는 순서 유형 분석

2021학년도 37번 문제

37.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점]

Experts have identified a large number of measures that promote energy efficiency. Unfortunately many of them are not cost effective. This is a fundamental requirement for energy efficiency investment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A) And this has direct repercussions at the individual level: households can reduce the cost of electricity and gas bills, and improve their health and comfort, while companies can increase their competitiveness and their productivity. Finally, the market for energy efficiency could contribute to the economy through job and firms creation.

(B) There are significant externalities to take into account and there are also macroeconomic effects. For instance, at the aggregate level, improving the level of national energy efficiency has positive effects on macroeconomic issues such as energy dependence, climate change, health,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reducing fuel poverty.

(C) However, the calculation of such cost effectiveness is not easy: it is not simply a case of looking at private costs and comparing them to the reductions achieved.

### 해석

전문가들은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는 다수의 대책을 찾아냈다. 유감스럽게도 그중 많은 수는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 이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에너지 효율을 위한 투자에 근본적인 필요조건이다.

(A)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즉 가정은 전기 비용과 가스 요금을 줄이고 그들의 건강과 안락함을 증진할 수 있는 반면에, 회사는 자체 경쟁력과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결국, 에너지 효율 시장은 일자리와 기업 창출을 통해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B) 고려해야 할 상당한 외부 효과가 있고 거시 경제적 효과도 있다. 예를 들어 총체적[집합적] 차원에서, 국가의 에너지 효율 수준을 높이는 것은 에너지 의존도, 기후 변화, 보건, 국가 경쟁력, 연료 빈곤을 줄이는 것과 같은 거시 경제적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C) 그러나 그러한 비용 효율성의 산정은 쉽지 않은데, 그것은 단순히 사적비용을 살펴보고 그것을 달성한 절감액과 비교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 어휘

- |   |  |   |
|---|--|---|
| <input type="checkbox"/> <b>measure</b> 대책, 조치                          | <input type="checkbox"/> <b>perspective</b> 관점         | <input type="checkbox"/> <b>externality</b> 외부 효과           |
| <input type="checkbox"/> <b>promote</b> 증진하다, 촉진하다                      | <input type="checkbox"/> <b>household</b> 가정           | <input type="checkbox"/> <b>take ~ into account</b> ~을 고려하다 |
| <input type="checkbox"/> <b>efficiency</b> 효율                           | <input type="checkbox"/> <b>gas bill</b> 가스 요금         | <input type="checkbox"/> <b>macroeconomic</b> 거시 경제의        |
| <input type="checkbox"/> <b>cost effective</b> 비용 효율적인[비용대<br>비 효율이 높은] | <input type="checkbox"/> <b>competitiveness</b> 경쟁력    | <input type="checkbox"/> <b>dependence</b> 의존도, 의존(성)       |
| <input type="checkbox"/> <b>fundamental</b> 근본적인                        | <input type="checkbox"/> <b>productivity</b> 생산성       | <input type="checkbox"/> <b>calculation</b> 산정, 계산          |
|   | <input type="checkbox"/> <b>contribute to</b> ~에 이바지하다 | <input type="checkbox"/> <b>reduction</b> 절감(액), 감소(량)      |

## 지문분석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접근 유형이다)

Experts have identified a large number of measures that promote energy efficiency. Unfortunately many of them are not cost effective. This is a fundamental requirement for energy efficiency investment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A) And this has direct repercussions at the individual level: households can reduce the cost of electricity and gas bills, and improve their health and comfort, while companies can increase their competitiveness and their productivity. Finally, the market for energy efficiency could contribute to the economy through job and firms creation.

제시문은 전문가들이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키는 대책을 찾아냈지만 그 중 많은 수는 비용대비 효율적이지 않고 이것(비용대비 효율성)은 에너지 효율을 위한 투자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고 (A)는 이것은 개인적인 레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A)의 this가 제시문의 비용대비 효율성을 지칭한다고 생각하면 (A)가 들어가면 안된다는 논리적 장치가 없다. 그러므로 우선 (A)는 살려놔야 한다.

(B) There are significant externalities to take into account and there are also macroeconomic effects. For instance, at the aggregate level, improving the level of national energy efficiency has positive effects on macroeconomic issues such as energy dependence, climate change, health,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reducing fuel poverty.

제시문 다음 문장은 제시문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B)는 제시문과 아무런 개연성이 없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그러므로 (B)는 제시문 뒤에 들어갈 근거가 없다.

(C) However, the calculation of such cost effectiveness is not easy: it is not simply a case of looking at private costs and comparing them to the reductions achieved.

(C)에는 such cost effectiveness가 나온다. such 때문에 앞 문장에는 반드시 비용대비 효율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하는데 제시문에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고 (A), (B)에는 나오고 있지 않으므로 제시문 뒤에는 (C)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 다음에는 (A)가 나올 수 없다. (A)의 this 때문에 앞문장에는 개인적 레벨에 영향을 끼칠만한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C)는 비용대비 효율성의 계산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내용만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제시문 뒤의 순서는 (C) - (B) - (A)가 됨을 알 수 있다.

## 삽입 유형 [38 - 39번]

### ○ 삽입 유형 접근 방향

1. 자연스러운 해석의 흐름으로 푸는 것이 아니다.
2. 지문은 하나의 논리적 흐름을 가진 글이다.
3. 지문내의 논리적 흐름의 '단절'을 찾아내야 한다.
4. 출제자는 지문내에 반드시 단절의 논리적 근거를 남긴다.

### ○ 평가원의 삽입 출제 유형은 2가지다!

1. 논리적 장치로서의 단절
2. 논리적 흐름에서의 단절



### 1. 논리적 장치로서의 단절

#### 1) 연결어 (연결어와 연결사는 구분해야 한다)

연결어	연결사
- 부사 (for example, in fact, in other word etc) - 앞 문장과의 관계성을 정리한다	-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 절과 절을 이어주는 장치

- 출제자는 연결어를 통해 앞 문장과의 단절의 근거를 만든다.
- **연결어의 유형을 반드시 정리해서 앞 문장과의 관계성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2) 대명사

1. 대명사가 지칭하는 명사는 반드시 그 문장 혹은 앞 문장에 있어야 한다.
2. 대명사의 수 일치는 명확하게 맞춰야 한다.
3. 대명사가 가르키는 부분은 앞절 전체일 수 있다.

#### 3) 흐름을 나타내는 부사

##### ① also, such, unfortunately, fortunately, disappointingly

Moreover, a tragic hero has to be someone who is neither especially good nor especially bad, an everyday, regular kind of human being at the ethical level. The audience could easily relate to **such a person**.

[such가 나오면 반드시 그 앞 문장에 설명이 나와야 한다.]

### □ 논리적 장치로서의 단절 예시

#### 평가원 기출 예시

The clanhouse usually consists of a room adjoining the dwelling of the senior female member of the clan.

Hopi religion features a ritual calendar that includes a large number of annually required ceremonies. In most cases, each ceremony is 'owned' by the members of a certain clan. ( ① ) Every clan represented in a village has a clanhouse in which the masks and other sacred items used in the ceremonies are kept when not in use. ( ② ) This woman is in charge of storing ritual equipment and of seeing to it that they are treated with the proper respect. ( ③ ) There is also a male head of each clan whose duties likewise are partly religious because he is in charge of the performance of ceremonies owned by his clan. ( ④ ) A male clan head passes his position down to either his younger brother or his sister's son. ( ⑤ ) In this way, culturally important ritual knowledge is kept within the clan.

\*clan: 씨족

②번 뒷 문장에 This woman 이 나온다. 대명사 this를 잡고 있으므로 반드시 앞문장에는 This woman이 지칭하는 명사가 나와야 하는데, ②번 앞문장에는 This woman이 지칭할 만한 명사가 나오지 않으므로 단절임을 알 수 있다.

2. 논리적 흐름에서의 단절

- 1)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출제 유형이다. (평가원 39번 유형)
- 2) 점점 출제 경향이 논리적 장치로서의 단절 → 논리적 흐름에서의 단절로 바뀌는 추세이다.
- 3) 문장간에는 일관된 논리적 흐름이 있어야 한다.
- 4) 새로운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려면 반드시 앞 부분에 정보가 제시될 토대가 제시되어야 한다.
- 5) 무언가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려면 반드시 앞 문장에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한다.

□ 논리적 흐름에서의 단절 예시

[2021학년도 5월 39번 - 오답률 81.1%]

The bacterium will swim in a straight line as long as the chemicals it senses seem better now than those it sensed a moment ago.

A bacterium is so small that its sensors alone can give it no indication of the direction that a good or bad chemical is coming from. ( ① )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bacterium uses time to help it deal with space. ( ② ) The bacterium is not interested in how much of a chemical is present at any given moment, but rather in whether that concentration is increasing or decreasing. ( ③ ) After all, if the bacterium swam in a straight line simply because the concentration of a desirable chemical was high, it might travel away from chemical nirvana, not toward it, depending on the direction it's pointing. ( ④ ) The bacterium solves this problem in an ingenious manner: as it senses its world, one mechanism registers what conditions are like right now, and another records how things were a few moments ago. ( ⑤ ) If not, it's preferable to change course. \* nirvana: 극락

⑤번 뒷문장 If not, it's preferable to change course.을 해석하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과정을 바꾸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이다. 논리적 글쓰기로 미뤄볼 때 앞 문장은 '만약 어떤 상황이라면 그것은 과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장이 와야 한다. 그래야 그 다음문장에 If not, it's preferable to change course. 이 문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⑤번 앞문장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없으므로 단절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 □ 이상INT가 제안하는 삽입 유형의 실전적 접근방향

### 1. 제시문을 분석한다.

- 1) **제시문에서 논리적 장치를 체크한다.** (연결어, 대명사, 흐름을 나타내는 부사)
- 2) **제시문이 앞 문장까지의 흐름의 힌트를 주는 경우, 앞 문장의 내용을 유추한다.**
  - 논리적 흐름에서의 단절 유형의 경우 필요하다.
- 3) **제시문 다음문장은 제시문의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같은 방향성이라는 말이다.)

### 2. 지문을 해석하며 단절을 찾아낸다.

- 1) 논리적 장치로서의 단절
  - **논리적 장치가 나오는 경우 반드시 단절의 유무를 체크한다.**
- 2) 논리적 흐름에서의 단절
  - **반드시 앞문장에 다음문장의 근거가 나와야 한다.**

# 2021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로 보는 삽입 유형 분석

2021학년도 38번 문제

38.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I have still not exactly pinpointed Maddy's character since wickedness takes many forms.

Imagine I tell you that Maddy is bad. Perhaps you infer from my intonation, or the context in which we are talking, that I mean morally bad. Additionally, you will probably infer that I am disapproving of Maddy, or saying that I think you should disapprove of her, or similar, given typical linguistic conventions and assuming I am sincere. ( ① ) However, you might not get a more detailed sense of the particular sorts of way in which Maddy is bad, her typical character traits, and the like, since people can be bad in many ways. ( ② ) In contrast, if I say that Maddy is wicked, then you get more of a sense of her typical actions and attitudes to others. ( ③ ) The word 'wicked' is more specific than 'bad'. ( ④ ) But there is more detail nevertheless, perhaps a stronger connotation of the sort of person Maddy is. ( ⑤ ) In addition, and again assuming typical linguistic conventions, you should also get a sense that I am disapproving of Maddy, or saying that you should disapprove of her, or similar, assuming that we are still discussing her moral character.

### 해석

내가 여러분에게 Maddy가 나쁘다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라. 아마 여러분은 나의 억양이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내 뜻이 도덕상 나쁘다는 것이라고 추론한다. 게다가 여러분은 아마, 일반적인 언어 관행을 고려하고 내가 진심이라고 상정한다면, 내가 Maddy를 못마땅해 하고 있다고, 또는 내 생각에 여러분이 그녀를 못마땅해 하거나 그와 비슷해야 한다고 내가 말하고 있다고, 추론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Maddy가 나쁜 특정 유형의 방식, 그녀의 일반적인 성격 특성 등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여러 방면에서 나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서, 만일 내가 Maddy는 사악하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녀의 일반적인 행동과 태도를 더 인식하게 된다. '사악한'이라는 낱말은 '나쁜'보다 더 구체적이다. (사악함은 여러 형태를 띠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Maddy의 성격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세부 사항, 아마도 Maddy의 사람 유형에 대한 더 두드러진 함축이 있다. 게다가, 그리고 다시 일반적인 언어 관행을 상정하면, 여러분은 또한, 우리가 여전히 그녀의 도덕적 성격을 논하고 있다고 상정하면서, 내가 Maddy를 못마땅해 하고 있다고, 또는 여러분이 그녀를 못마땅해 하거나 그와 비슷해야 한다고 내가 말하고 있다고 인식할 것이다.

### 어휘

- |   |   |   |
|---|---|---|
| <input type="checkbox"/> pinpoint 정확하게 지적[묘사]하다 | <input type="checkbox"/> disapprove of ~을 못마땅해 하다 | <input type="checkbox"/> sort 유형, 부류, 종류        |
| <input type="checkbox"/> character 성격, 성품       | <input type="checkbox"/> given ~을 고려할 때           | <input type="checkbox"/> trait 특성               |
| <input type="checkbox"/> wickedness 사악함         | <input type="checkbox"/> linguistic 언어적인          | <input type="checkbox"/> specific 구체적인          |
| <input type="checkbox"/> infer 추론하다             | <input type="checkbox"/> convention 관행            | <input type="checkbox"/>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
| <input type="checkbox"/> intonation 억양          | <input type="checkbox"/> sincere 진심인, 진정한         |   |
| <input type="checkbox"/> context 상황, 맥락         | <input type="checkbox"/> detailed 자세한             |   |

## 지문분석

I have still not exactly pinpointed **Maddy**'s character since **wickedness** takes many forms.

제시문을 분석해 보면, 우선 제시문으로는 앞 문장의 내용을 유추할 수 없다. 그러나 **Maddy**라는 단어와 **wickedness**라는 단어는 구체적인 정보이므로 이 문장의 앞 부분에는 반드시 언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Imagine I tell you that Maddy is bad. Perhaps you infer from my intonation, or the context in which we are talking, that I mean morally bad. Additionally, you will probably infer that I am disapproving of Maddy, or saying that I think you should disapprove of her, or similar, given typical linguistic conventions and assuming I am sincere. ( ① ) However, you might not get a more detailed sense of the particular sorts of way in which Maddy is bad, her typical character traits, and the like, since people can be bad in many ways. ( ② ) In contrast, if I say that Maddy is wicked, then you get more of a sense of her typical actions and attitudes to others. ( ③ ) The word 'wicked' is more specific than 'bad'. ( ④ ) **But** there is more detail **nevertheless**, perhaps a stronger connotation of the sort of person Maddy is.

④번 뒷 문장을 보면 **but**과 **nevertheless**가 나오는 것을 미뤄보아 앞 문장에서 방향성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앞 문장과는 반대의 흐름 이어야 한다).

④번 뒷 문장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세부 사항, 아마도 Maddy의 사람 유형에 대한 더 두드러진 함축이 있다.

이 해석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앞 문장은 Maddy에 대해 구체적인 것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흐름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다음 문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Maddy의 사람 유형에 대한 더 두드러진 함축이 있다는 문장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④번 앞문장을 보면 The word 'wicked' is more specific than 'bad'. 이므로 우리가 ④번 뒷문장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앞문장의 내용이 아니게 된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 ⑤ ) In addition, and again assuming typical linguistic conventions, you should also get a sense that I am disapproving of Maddy, or saying that you should disapprove of her, or similar, assuming that we are still discussing her moral character.

# 2021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로 보는 삽입 유형 분석

2021학년도 39번 문제

38.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3점]

Note that copyright covers the expression of an idea and not the idea itself.

Designers draw on their experience of design when approaching a new project. This includes the use of previous designs that they know work – both designs that they have created themselves and those that others have created. ( ① ) Others' creations often spark inspiration that also leads to new ideas and innovation. ( ② ) This is well known and understood. ( ③ ) However, the expression of an idea is protected by copyright, and people who infringe on that copyright can be taken to court and prosecuted. ( ④ ) This means, for example, that while there are numerous smartphones all with similar functionality, this does not represen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as the idea has been expressed in different ways and it is the expression that has been copyrighted. ( ⑤ ) Copyright is free and is automatically invested in the author, for instance, the writer of a book or a programmer who develops a program, unless they sign the copyright over to someone else.

### 해석

디자이너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접근할 때 자신의 디자인 경험을 이용한다. 이것에는 효과가 있다고 그들이 알고 있는 이전의 디자인, 즉 그들이 직접 만들었던 디자인과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던 디자인을 둘 다 활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은 흔히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으로도 이어지는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잘 알려져 있고 이해되는 일이다. 그러나 한 아이디어의 표현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며, 그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은 법정에 끌려가고 기소될 수 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표현을 다루지, 아이디어 그 자체를 다루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라. 이것은 예를 들어, 모두 유사한 기능을 가진 많은 스마트폰이 있지만, 그 아이디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고 저작권 보호를 받은 것은 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작권 침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은 무료이며 저작자, 예를 들어 어떤 책의 저자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가 저작권을 다른 누군가에게 양도하지 않는 한 그 저작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된다.

### 어휘

- |   |  |   |
|---|--|---|
| <input type="checkbox"/> copyright 저작권: 저작권을 보호하다 | <input type="checkbox"/> inspiration 영감                | <input type="checkbox"/> automatically 자동으로             |
| <input type="checkbox"/> cover 다루다                | <input type="checkbox"/> numerous 많은                   | <input type="checkbox"/> invest 부여하다, 투자하다              |
| <input type="checkbox"/> draw on ~을 이용하다, ~에 의지하다 | <input type="checkbox"/> functionality (컴퓨터·전자 장치의) 기능 | <input type="checkbox"/> sign ~ over to... ..에게 ~을 양도하다 |
| <input type="checkbox"/> spark 불러일으키다             | <input type="checkbox"/> represent 나타내다                |   |

## 지문분석

Note that copyright covers the expression of an idea and not the idea itself.

제시문을 분석해보면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표현을 다루지, 아이디어 그 자체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 문장으로 보아 앞문장은 저작권이 다루는 것에 대해 나와야 하고 그 저작권이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닌 아이디어의 표현에 대해 다루는 것에 대한 흐름이 나와야 한다.

Designers draw on their experience of design when approaching a new project. This includes the use of previous designs that they know work – both designs that they have created themselves and those that others have created. ( ① ) Others' creations often spark inspiration that also leads to new ideas and innovation. ( ② ) This is well known and understood. ( ③ ) However, the expression of an idea is protected by copyright, and people who infringe on that copyright can be taken to court and prosecuted. ( ④ ) This means, **for example**, that while there are numerous smartphones all with similar functionality, this does not represen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as the idea has been expressed in different ways and it is the expression that has been copyrighted.

④번 뒷 문장을 보면 대명사인 **this**와 연결어인 **for example**가 나온다. 그러므로 ④ 앞 문장과 뒷문장이 이어지려면 ④번 뒷 문장은 앞 문장에 대한 예시여야 한다.

④번 뒷 문장을 보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이 많지만, 그 아이디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므로 앞 문장은 이 예시를 언급할 만한 내용이어야 하는데, 앞문장은 아이디어에 대한 표현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서 그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이 법정에 끌려가서 기소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므로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절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 ⑤ ) Copyright is free and is automatically invested in the author, for instance, the writer of a book or a programmer who develops a program, unless they sign the copyright over to someone else.



## CHAPTER 4

---

# 그 외 유형

[심경 변화, 실용문, 요약문, 장문 유형]

# 2021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로 보는 심경변화 유형 분석

**QUICK TIP!**  
이상이나 제시하는 정근 전략

예전에는 평가원은 지문을 통해 글쓴이의 심경을 묻는 문제를 출제했었는데, 심경의 변화를 묻는 문제로 방향성을 바꿔서 출제하고 있다.

1. 지문은 하나의 사건의 흐름을 통해 글쓴이의 심경변화를 보여준다.
2. 글쓴이의 심경 변화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체크해야 한다.

## 2021학년도 19번 문제

19. 다음 글에 드러난 'I'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ce again, I had lost the piano contest to my friend. When I learned that Linda had won, I was **deeply troubled and unhappy**. My body was shaking with uneasiness. My heart beat quickly and my face became reddish. I had to run out of the concert hall to settle down. Sitting on the stairs alone, I recalled what my teacher had said. "Life is about winning, not necessarily about winning against others but winning at being you. And the way to win is to figure out who you are and do your best." He was absolutely right. I had no reason to oppose my friend. Instead, I should focus on myself and my own improvement. I breathed out slowly. My hands were steady now. At last, my mind was **at peace**.

- ① grateful → sorrowful      ② upset → calm      ③ envious → doubtful
- ④ surprised → disappointed      ⑤ bored → relieved

**해석**

또다시 나는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내 친구에게 졌다. Linda가 우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매우 괴롭고 우울했다. 내 몸은 불쾌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내 얼굴은 불그스레해졌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콘서트홀에서 뛰쳐 나와야 했다. 홀로 계단에 앉아, 나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다. "인생은 이기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것에서 이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기는 방법은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내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거란다." 선생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았다. 나는 내 친구를 적대할 이유가 없었다. 대신, 나는 나 자신과 나 자신의 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내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다. 마침내 내 마음이 편해졌다.

**해설**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친구인 Linda에게 또 다시 우승을 내주고 괴롭고 우울한 마음에 콘서트홀을 뛰쳐나와, 계단에 홀로 앉아 선생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감정을 추스른 후 마음의 평정을 찾았으므로, 글에 드러난 'I'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심란한 → 차분한'이다.  
 ① 고마워하는 → 슬픈    ③ 부러워하는 → 의심하는    ④ 놀란 → 실망한    ⑤ 따분한 → 안도한

**어휘**

- uneasiness 불쾌감       settle down (마음을) 가라앉히다       oppose 적대하다
- reddish 불그스레한       figure out ~을 알아내다

19. 다음 글에 드러난 Dave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waves were perfect for surfing. Dave, however, just could not stay on his board. He had tried more than ten times to stand up but never managed it. He felt that he would never succeed. He was about to give up when he looked at the sea one last time. The swelling waves seemed to say, "Come on, Dave. One more try!" Taking a deep breath, he picked up his board and ran into the water. He waited for the right wave. Finally, it came. He jumped up onto the board just like he had practiced. And this time, standing upright, he battled the wave all the way back to shore. Walking out of the water joyfully, he cheered, "Wow, I did it!"

- ① frustrated → delighted      ② bored → comforted      ③ calm → annoyed  
 ④ relieved → frightened      ⑤ pleased → upset

**해석**

파도는 서핑하기에 완벽했다. 하지만 Dave는 자신의 보드 위에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일어서려고 열 번 넘게 시도해 보았지만 결코 해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꼈다. 막 포기하려고 할 때 그는 바다를 마지막으로 한 번 쳐다보았다. 넘실거리는 파도가 "이리와, Dave. 한 번 더 시도해 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심호흡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보드를 집어 들고 바다로 달려 들어갔다. 그는 적당한 파도를 기다렸다. 마침내 그것이 왔다. 그는 자신이 연습했던 그대로 보드 위로 점프해 올랐다. 그리고 이번에는 똑바로 서서 그는 해안으로 되돌아오는 내내 파도와 싸웠다. 기쁨에 차서 물 밖으로 걸어 나오며 그는 "와, 내가 해냈어!"라고 환호성을 질렀다.

**해설**

The waves were perfect for surfing. Dave, however, just could not stay on his board. He had tried more than ten times to stand up but never managed it. He felt that he would never succeed. He was about to give up when he looked at the sea one last time. The swelling waves seemed to say, "Come on, Dave. One more try!" Taking a deep breath, he picked up his board and ran into the water. He waited for the right wave. Finally, it came. He jumped up onto the board just like he had practiced. And this time, standing upright, he battled the wave all the way back to shore. Walking out of the water joyfully, he cheered, "Wow, I did it!"

서프보드를 타려고 열 번 넘게 시도했지만 실패를 해 실망스런 심경이었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시도해 성공한 후에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는 내용이므로 심경 변화로 적절한 것은 ① '실망한 → 기뻐하는'이다.  
 ② 따분한 → 편안한    ③ 침착한 → 짜증 난    ④ 안심한 → 두려운    ⑤ 즐거운 → 화난

**어휘**

- manage 해내다, 성공하다       swelling 넘실거리는       cheer 환호성을 지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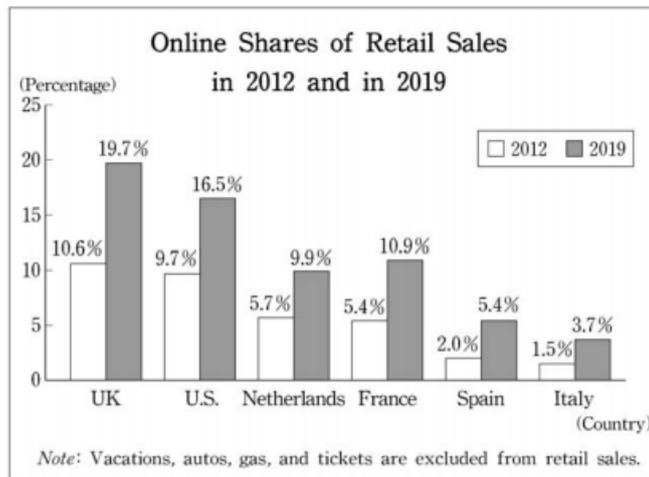
# 2021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로 보는 실용문-도표 유형 분석

**QUICK TIPS!**  
이상이나  
제시하는  
접근 전략

구체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단어 하나,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

2021학년도 25번 문제

25.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 graph above shows the online shares of retail sales for each of six countries in 2012 and in 2019. The online share of retail sales refers to the percentage of retail sales conducted online in a given country. ① For each country, its online share of retail sales in 2019 was larger than that in 2012. ② Among the six countries, the UK owned the largest online share of retail sales with 19.7% in 2019. ③ In 2019, the U.S. had the second largest online share of retail sales with 16.5%. ④ In 2012, the online share of retail sales in the Netherlands was larger than that in France, whereas the reverse was true in 2019. ⑤ In the case of Spain and Italy, the online share of retail sales in each country was less than 5.0% both in 2012 and in 2019.

## 해석

위 도표는 2012년과 2019년에 여섯 나라 각각의 소매 판매의 온라인 점유율을 보여 준다. 소매 판매의 온라인 점유율은 주어진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소매 판매의 비율을 말한다. 각 나라에서 2019년의 소매 판매의 온라인 점유율은 2012년의 그것보다 더 컸다. 여섯 나라 중에서 영국은 2019년에 19.7%로 가장 큰 소매 판매의 온라인 점유율을 가졌다. 2019년에 미국은 16.5%로 소매 판매의 온라인 점유율이 두 번째로 컸다. 2012년에 네덜란드의 소매 판매의 온라인 점유율은 프랑스의 그것보다 더 컸지만, 2019년에는 그 반대였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우에, 각국에서 소매 판매의 온라인 점유율이 2012년과 2019년 둘 다에서 5.0%에 미치지 못했다.

## 어휘

- share 점유율
- own 가지다, 소유하다
- retail sales 소매 판매
- reverse 반대, 역(逆)

## 지문분석

The graph above shows the online shares of retail sales for each of six countries in 2012 and in 2019. The online share of retail sales refers to the percentage of retail sales conducted online in a given country. ① For each country, its online share of retail sales in 2019 was larger than that in 2012. ② Among the six countries, the UK owned the largest online share of retail sales with 19.7% in 2019. ③ In 2019, the U.S. had the second largest online share of retail sales with 16.5%. ④ In 2012, the online share of retail sales in the Netherlands was larger than that in France, whereas the reverse was true in 2019. ⑤ In the case of Spain and Italy, the online share of retail sales in each country was less than 5.0% both in 2012 and in 2019.

접근방향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표 문제는 수치나 높고 낮음 등 지문의 내용과 대조될 수 있는 어휘에 집중해야 한다.  
2019년에 스페인의 소매판매의 온라인 점유율은 5.4%이므로, ⑤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2021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로 보는 실용문-일치·불일치 유형 분석



**26번 유형은 지문과 선지의 흐름의 순서가 일치하므로 ⑤번 선지부터 위로 확인하며 올라간다.**  
**⑤번을 읽고 키워드를 체크해서 지문의 마지막 문장부터 키워드를 찾아 문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④, ③번 순서로 위의 선지를 체크하며 올라간다.**

이상민가가 제시하는 접근 전략

2021학년도 26번 문제

26. Frank Hyneman Knight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Frank Hyneman Knight w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economists of the twentieth century. After obtaining his Ph.D. in 1916 at Cornell University, Knight taught at Cornell, the University of Iowa, and the University of Chicago. Knight spent most of his career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Some of his students at Chicago later received the Nobel Prize. Knight is known as the author of the book Risk, Uncertainty and Profit, a study of the role of the entrepreneur in economic life. He also wrote a brief introduction to economics entitled The Economic Organization, which became a classic of microeconomic theory. But Knight was much more than an economist; he was also a social philosopher. Later in his career, Knight developed his theories of freedom, democracy, and ethics. After retiring in 1952, Knight remained active in teaching and writing.

\*entrepreneur: 기업가

- ①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들 중 한 명이었다.
- ② 경력의 대부분을 University of Chicago에서 보냈다.
- ③ 그의 학생들 중 몇 명은 나중에 노벨상을 받았다.
- ④ Risk, Uncertainty and Profit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 ⑤ 은퇴 후에는 가르치는 일은 하지 않고 글 쓰는 일에 전념했다.

### 해석

Frank Hyneman Knight는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들 중 한 명이었다. 1916년에 Cornell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에, Knight는 Cornell, Iowa 대학교, Chicago 대학교에서 가르쳤다. Knight는 경력의 대부분을 Chicago 대학교에서 보냈다. Chicago에서 그의 학생들 중 몇 명은 나중에 노벨상을 받았다. Knight는 경제생활에서 기업가의 역할에 대한 연구인 Risk, Uncertainty and Profit 이라는 책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또한 The Economic Organization 이라는 제목의 짧은 경제학 개론서를 썼는데, 그것은 미시 경제학 이론의 고전이 되었다. 하지만 Knight는 경제학자를 훨씬 넘어 사회 철학자이기도 했다. 경력의 후반기에 Knight는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윤리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1952년에 은퇴한 후에도 Knight는 가르치기와 글쓰기에 여전히 적극적이었다.

### 어휘

- |   |  |                                      |
|---|--|--------------------------------------|
| <input type="checkbox"/> influential 영향력 있는 | <input type="checkbox"/> entitle 제목을 붙이다             | <input type="checkbox"/> retire 은퇴하다 |
| <input type="checkbox"/> economist 경제학자     | <input type="checkbox"/> microeconomic theory 미시 경제학 |                                      |
| <input type="checkbox"/> introduction 개론서   | <input type="checkbox"/> 이론                          |                                      |

## 지문분석

Frank Hyneman Knight w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economists of the twentieth century. After obtaining his Ph.D. in 1916 at Cornell University, Knight taught at Cornell, the University of Iowa, and the University of Chicago. Knight spent most of his career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Some of his students at Chicago later received the Nobel Prize. Knight is known as the author of the book Risk, Uncertainty and Profit, a study of the role of the entrepreneur in economic life. He also wrote a brief introduction to economics entitled The Economic Organization, which became a classic of microeconomic theory. But Knight was much more than an economist: he was also a social philosopher. Later in his career, Knight developed his theories of freedom, democracy, and ethics. **After retiring in 1952, Knight remained active in teaching and writing.**

- ①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들 중 한 명이었다.
- ② 경력의 대부분을 University of Chicago에서 보냈다.
- ③ 그의 학생들 중 몇 명은 나중에 노벨상을 받았다.
- ④ Risk, Uncertainty and Profit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 ⑤ **은퇴** 후에는 가르치는 일은 하지 않고 글 쓰는 일에 전념했다.

⑤번 선지는 **은퇴** 후에는 가르치는 일은 하지 않고 글 쓰는 일에 전념했다고 했으므로 '**은퇴**'라는 키워드를 지문의 맨 마지막 문장부터 찾아서 확인해야 하는데, 지문의 맨 마지막 문장에 **retiring**이 나오고 있으므로 맨 마지막 문장을 확인한다. 이 문장에서 은퇴 후에 Knight는 가르치고 글 쓰는 일에 전념했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⑤번임을 알 수 있다.

# 2021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로 보는 실용문-안내문 불일치 유형 분석

2021학년도 27번 문제

27. City of Sittka Public Bike Sharing Service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City of Sittka Public Bike Sharing Service**

Are you planning to explore the city?  
This is the eco-friendly way to do it!

**Rent**

- Register anywhere via our easy app.
- Payment can be made only by credit card.

**Fee**

- Free for the first 30 minutes
- One dollar per additional 30 minutes

**Use**

- Choose a bike and scan the QR code on the bike.
- Helmets are not provided.

**Return**

- Return the bike to the Green Zone shown on the app.
- Complete the return by pressing the OK button on the bike.



- ① 신용 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 ② 처음 30분은 무료이다.
- ③ 자전거의 QR 코드를 스캔해서 이용한다.
- ④ 헬멧이 제공된다.
- ⑤ 자전거의 OK 버튼을 눌러서 반납을 완료한다.

## 해석

Sittka시 공공 자전거 공유 서비스

시를 답사할 계획이신가요?

이것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법입니다!

**대여** • 저희의 쉬운 앱을 이용해 어디서든 등록하세요. • 요금 지불은 신용카드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요금** • 처음 30분은 무료입니다. • 추가 30분마다 1달러입니다.

**사용** • 자전거를 선택하고 그 자전거의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 헬멧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반납** • 앱에 보이는 Green Zone으로 자전거를 반납하세요. • 자전거의 OK 버튼을 눌러 반납을 완료하세요.

## 지문분석

### City of Sittka Public Bike Sharing Service

Are you planning to explore the city?  
This is the eco-friendly way to do it!



#### Rent

- Register anywhere via our easy app.
- Payment can be made only by credit card.

#### Fee

- Free for the first 30 minutes
- One dollar per additional 30 minutes

#### Use

- Choose a bike and scan the QR code on the bike.
- Helmets are not provided.

#### Return

- Return the bike to the Green Zone shown on the app.
- Complete the return by pressing the OK button on the bike.

- ① 신용 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 ② 처음 30분은 무료이다.
- ③ 자전거의 QR 코드를 스캔해서 이용한다.
- ④ 헬멧이 제공된다.
- ⑤ 자전거의 OK 버튼을 눌러서 반납을 완료한다.

헬멧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

# 2021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로 보는 요약문 유형 분석



이상이나  
제시하는  
접근 전략

1. 요약문 먼저 읽고 (A), (B)의 구체적인 타겟을 잡은 후 지문을 체크하면서 (A), (B)의 내용이 담긴 문장을 찾아 체크한다.
2. 지문에서 (A)와 (B)에 들어갈 내용은 대부분 각각 한 문장씩에서 언급된다.
3. 지문에서 (A), (B)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전체적인 필자의 의도를 잡아야만 하는 문제가 출제되면 고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 2021학년도 40번 문제

40.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the equation between public leadership and dominance is questionable. What does one mean by 'dominance'? Does it indicate coercion? Or control over 'the most valued'? 'Political' systems may be about both, either, or conceivably neither. The idea of 'control' would be a bothersome one for many peoples, as for instance among many native peoples of Amazonia where all members of a community are fond of their personal autonomy and notably allergic to any obvious expression of control or coercion. The conception of political power as a coercive force, while it may be a Western fixation, is not a universal. It is very unusual for an Amazonian leader to give an order. If many peoples do not view political power as a coercive force, nor as the most valued domain, then the leap from 'the political' to 'domination' (as coercion), and from there to 'domination of women', is a shaky one. As Marilyn Strathern has remarked, the notions of 'the political' and 'political personhood' are cultural obsessions of our own, a bias long reflected in anthropological constructs.

\* coercion: 강제 \*\* autonomy: 자율 \*\*\* anthropological: 인류학의



It is \_\_\_ (A) \_\_\_ to understand political power in other cultures through our own notion of it because ideas of political power are not \_\_\_ (B) \_\_\_ across cultures.

- |             |       |           |                   |
|-------------|-------|-----------|-------------------|
|             | (A)   | (B)       |                   |
| ① rational  | ····· | flexible  | ② appropriate     |
| ③ misguided | ····· | uniform   | ④ unreasonable    |
| ⑤ effective | ····· | objective | ····· commonplace |
|             |       |           | ····· varied      |

### 해석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대중적인 지도력과 지배력 사이의 방정식은 의심스럽다. '지배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강제를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대한 통제인가? '정치적' 시스템은 둘 다에 관한 것일 수도, 둘 중 하나에 관한 것일 수도, 아니면 아마도 둘 다에 관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통제'라는 생각은 많은 부족에게는 성가신 것일 텐데, 예를 들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개인의 자율성을 좋아하고 통제나 강제가 명백하게 표현되는 어떤 것이든 몹시 싫어하는 아마존의 많은 원주민 부족 사이에서처럼 말이다. 서양의 고정관념일지 모르겠지만, '강제적인' 힘으로서 정치권력이라는 개념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아마존의 지도자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많은 부족이 정치권력을 강제적인 힘으로, '또한 가장 가치 있는 영역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정치적인 것'에서 (강제로서의) '지배'로, '그리고 거기에서' '여성에 대한 지배'로 비약하는 것은 불안정한 비약이다. Marilyn Strathern이 말한 것처럼, '정치적인 것'과 '정치적 개성'이라는 개념은 우리 자신의 문화적 강박 관념으로, 인류학적 구성 개념에 오랫동안 반영된 편견이다.

### 지문분석

It is \_\_\_\_ (A) \_\_\_\_ to understand political power in other cultures through our own notion of it because ideas of political power are not \_\_\_\_ (B) \_\_\_\_ across cultures.

우리가 지문에서 찾아야 할 (A), (B)는 아래와 같다.

정치 권력에 대한 우리 자신의 개념을 통해 다른 문화에서의 정치 권력을 이해하는 것은 \_\_\_\_ (A) \_\_\_\_ 것인데, 왜냐하면 정치 권력에 관한 생각은 여러 문화에 걸쳐 \_\_\_\_ (B) \_\_\_\_ 않기 때문이다.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the equation between public leadership and dominance is questionable. What does one mean by 'dominance'? Does it indicate coercion? Or control over 'the most valued'? 'Political' systems may be about both, either, or conceivably neither. The idea of 'control' would be a bothersome one for many peoples, as for instance among many native peoples of Amazonia where all members of a community are fond of their personal autonomy and notably allergic to any obvious expression of control or coercion. The conception of political power as a coercive force, while it may be a Western fixation, is not a universal. It is very unusual for an Amazonian leader to give an order. If many peoples do not view political power as a coercive force, nor as the most valued domain, then the leap from 'the political' to 'domination' (as coercion), and from there to 'domination of women', is a shaky one. As Marilyn Strathern has remarked, the notions of 'the political' and 'political personhood' are cultural obsessions of our own, a bias long reflected in anthropological constructs.

이 문제는 지문의 특정 문장에서 (A), (B)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필자의 의도를 통해서 요약문의 (A), (B)를 언급하고 있다.

서양은 지배를 통제나 강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반해, 아마존의 많은 원주민 부족은 정치권력을 강제적인 힘으로 여기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 권력에 관한 생각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므로, 다른 문화의 정치권력을 서양의 개념에 따라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요약문의 빈칸 (A)와 (B)에 각각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잘못 이해된 - 일률적이지'이다.

- ① 합리적인 - 유연하지 ② 적절한 - 흔하지 ④ 불합리한 - 다양하지 ⑤ 효과적인 - 객관적이지

# 2021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로 보는 장문1 유형 분석



이상이나  
제시하는  
접근 전략

○ 출제 경향 1. 시간 압박 때문에 중위권 학생들은 지문을 한번 정확하게 읽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2. 최근에 어휘 문제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 접근 방향 1. 우선 대의파악 문제의 선지를 먼저 읽고 체크한다.  
2. 필자의 의도를 파악해가며 각 문장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흐름에서 단절된 어휘를 체크한다.

## 2021학년도 41-42번 문제

Our irresistible tendency to see things in human terms – that we are often mistaken in attributing complex human motives and processing abilities to other species – does not mean that an animal’s behavior is not, in fact, complex. Rather, it means that the complexity of the animal’s behavior is not purely a (a)product of its internal complexity. Herbert Simon’s “parable of the ant” makes this point very clearly. Imagine an ant walking along a beach, and (b)visualize tracking the trajectory of the ant as it moves. The trajectory would show a lot of twists and turns, and would be very irregular and complicated. One could then suppose that the ant had equally complicated (c)internal navigational abilities, and work out what these were likely to be by analyzing the trajectory to infer the rules and mechanisms that could produce such a complex navigational path. The complexity of the trajectory, however, “is really a complexity in the surface of the beach, not a complexity in the ant.” In reality, the ant may be using a set of very (d)complex rules: it is the interaction of these rules with the environment that actually produces the complex trajectory, not the ant alone. Put more generally, the parable of the ant illustrates that there is no necessary correlation between the complexity of an (e)observed behavior and the complexity of the mechanism that produces it.

\* parable: 우화 \*\* trajectory: 이동 경로

### 41. 밑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Open the Mysterious Door to Environmental Complexity!
- ② Peaceful Coexistence of Human Beings and Animals
- ③ What Makes the Complexity of Animal Behavior?
- ④ Animals’ Dilemma: Finding Their Way in a Human World
- ⑤ Environmental Influences on Human Behavior Complexity

### 42. 밑글 친 (a)~(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 해석

인간의 견지에서 사물을 보는 우리의 억누를 수 없는 경향, 즉 다른 종들에게 복잡한 인간의 동기와 처리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은 동물의 행동이 사실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동물 행동의 복잡성이 순전히 그것의 내적 복잡성의 산물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Herbert Simon의 '개미 우화'는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말해 준다. 개미 한 마리가 해변을 따라 걷는 것을 상상하고, 그 개미가 이동함에 따라 그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 보라. 그 이동 경로는 여러 차례 구부러지고 방향이 바뀔 것이고, 매우 불규칙하고 복잡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개미에게 동등하게 복잡한 내적 항행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런 복잡한 항행 경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규칙과 기제를 추론하기 위해 그 이동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이것이 무엇일 수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동 경로의 복잡성은 '실제로 해변 지면에서의 복잡성이지만 그 개미의 내적 복잡성이 아니다.' 사실 그 개미는 일련의 매우 복잡한(→ 단순한) 규칙들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복잡한 이동 경로를 실제로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이 규칙들과 환경의 상호작용이지, 그 개미 단독으로는 아니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개미 우화는 관찰된 행동의 복잡성과 그것(복잡한 행동)을 만들어 내는 기제의 복잡성 사이의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 준다.

## 어휘

- |   |  |  |
|---|--|--|
| <input type="checkbox"/> irresistible 억누를 수 없는      | <input type="checkbox"/> track 추적하다            | <input type="checkbox"/> infer 추론하다                              |
| <input type="checkbox"/> tendency 경향                | <input type="checkbox"/> irregular 불규칙적인       | <input type="checkbox"/> mechanism (생물체 내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제[구조] |
| <input type="checkbox"/> attribute (성질 등이) 있다고 생각하다 | <input type="checkbox"/> complicated 복잡한       | <input type="checkbox"/> correlation 상관관계                        |
| <input type="checkbox"/> complexity 복잡성             | <input type="checkbox"/> navigational 항행의, 항해의 |  |
| <input type="checkbox"/> visualize 머릿속에 그리다, 상상하다   | <input type="checkbox"/> analyze 분석하다          |  |

## 지문분석

### ◎ 41번

지문의 흐름을 보면 인간의 견지에서 보면 동물의 행동이 복잡성을 띠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동물의 단순한 행동 규칙이 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동물의 행동이 복잡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라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무엇이 동물 행동의 복잡성을 만드는가?' 이다.

- ① 환경의 복잡성에 이르는 신비의 문을 열라!
- ② 인간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
- ④ 동물의 딜레마: 인간 세계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
- ⑤ 인간 행동 복잡성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

### ◎ 42번

지문 처음부터 소재와 방향성을 잡으면서 체크해보면, 개미는 복잡한 내적 항행 능력이 없으므로 그것의 행동 규칙으로는 복잡한 이동 경로를 만들어 낼 수 없다. 그것의 규칙이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그것이 복잡한 이동 경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으므로, 그 규칙은 복잡한 내적 항행 능력을 반영하는 복잡한 규칙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밑줄 친 (d)의 complex를 simple 정도의 어휘로 바꿔야 한다.

# 2021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로 보는 장문2 유형 분석

2021학년도 43-45번 문제

(A)

In this area, heavy snow in winter was not uncommon. Sometimes it poured down for hours and hours and piled up very high. Then, no one could go out. Today too, because of the heavy snow, Mom was doing her office work at the kitchen table. Felix, the high schooler, had to take online classes in his room. Five-year-old Sean, who normally went to kindergarten, was sneaking around in the house playing home policeman. (a)The kindergartener wanted to know what his family members were up to, and was checking up on everyone.

(B)

“All right. I’m sure you’re doing your work.” Mom replied, and then sharply added a question. “Sean, what are you doing?” Sean’s face immediately became blank, and he said, “Nothing.” “Come here, Honey, and you can help me.” Sean ran to the kitchen right away. “What can I do for you, Mom?” His voice was high, and Felix could sense that his brother was excited. Felix was pleased to get rid of (b)the policeman, and now he could concentrate on the lesson, at least till Sean came back.

(C)

While checking on his family, Sean interfered in their business as if it was his own. This time, (c)the playful and curious boy was interested in his brother Felix, who committed himself to studying no matter where he was. Sean secretly looked inside his brother’s room from the door, and shouted toward the kitchen where Mom was working, “Mom, Felix isn’t studying. He’s just watching a funny video.” Sean was naughtily smiling at his brother.

(D)

Felix was mad because (d)his little brother was bothering him. Felix was studying science using a video posted on the school web site. He made an angry face at the naughty boy. Right then, Mom asked loudly from the kitchen, “What are you doing, Felix?” Felix’s room was located next to the kitchen, and he could hear Mom clearly. “I’m watching a lecture video for my science class.” Felix argued against Sean’s accusation and mischievously stuck (e)his tongue out at his little brother.

43.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B) - (D) - (C)                      ② (C) - (B) - (D)                      ③ (C) - (D) - (B)  
④ (D) - (B) - (C)                      ⑤ (D) - (C) - (B)

44. 밑줄 친 (a)~(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45. 밑줄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엄마는 폭설로 인해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② Sean은 엄마가 불러서 주방으로 달려갔다.  
③ Sean은 몰래 형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④ Felix는 자신의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⑤ Felix의 방은 주방 옆에 있었다.

## 해석

(A) 이 지역에서는 겨울에 폭설이 내리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다. 때로는 몇 시간이고 쏟아져 내려 아주 높이 쌓였다. 그러면 아무도 나갈 수 없었다. 오늘 또한 폭설로 인해 엄마는 주방 식탁에서 사무실 업무를 보고 있었다. 고등학생 Felix는 자기 방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했다. 평소에는 유치원에 가던 다섯 살짜리 Sean은 가정 경찰관 놀이를 하며 집안 이곳저곳을 몰래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유치원생은 가족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었고, 모두를 확인하고 있었다.

(B) “그래. 넌 틀림없이 네 일을 하고 있을 거야.”라고 엄마가 대답하고 나서 재빨리 질문을 덧붙였다. “Sean, ‘넌’ 뭐 하고 있니?” Sean은 즉시 얼빠진 표정이 되었고, 그는 “아무것도 안 해요.”라고 말했다. “애야, 이리 오렴. 그러면 날 도와줄 수 있어.” Sean은 곧바로 주방으로 달려갔다. “엄마, 내가 뭘 도와줄까요?” 그의 목청은 높았고, Felix는 동생이 신이 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Felix는 경찰관에게서 벗어나서 기뻛고, 적어도 Sean이 돌아올 때까지 이제 그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C) Sean은 가족을 확인하는 동안 그들의 일이 자기 일인 것처럼 그 일에 간섭했다. 이번에는 그 장난기 많고 호기심 많은 아이가 형 Felix에게 관심을 보였는데, 그는 어디에 있든지 공부에 전념했다. Sean은 문에서 형의 방을 몰래 들여다보고는, 엄마가 일하고 있는 주방을 향해 “엄마, Felix가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라고 소리쳤다. Sean은 형을 바라보며 짓궂게 웃고 있었다.

(D) Felix는 동생이 자신을 성가시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다. Felix는 학교 웹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을 이용해서 과학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 개구쟁이 아이를 향해 화난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때 엄마가 주방에서 큰소리로 “Felix, 무얼 하고 있니?”라고 물었다. Felix의 방은 주방 옆에 있었고, 그는 엄마의 말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과학 수업의 강의 영상을 보고 있어요.” Felix는 Sean의 비난을 반박하고는 장난기 있게 동생에게 자기 혀를 내밀었다.

## 지문분석

◎ 43번

1. 장문의 순서유형 난이도는 일반 순서 유형 문제의 난이도보다 훨씬 낮다.
2. (A)를 읽고 다음 선지들을 읽으면서 흐름을 체크한다.

폭설로 인해 모두 집에 머무르는 가운데 Sean이 경찰관 놀이를 하며 가족들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려 집안 이곳저곳을 몰래 돌아다니는 내용이 언급된 글 (A) 다음에는 Sean이 형 Felix의 방을 들여다보면서 엄마에게 형이 공부를 안 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있다고 거짓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글 (C)가 이어져야 한다. 글 (C) 다음에는 Felix가 과학 수업의 강의 영상을 보며 과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엄마에게 말하면서 Sean의 비난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 (D)가 이어져야 한다. 글 (D) 다음에는 엄마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Sean을 부르고, 그로 인해 Felix가 동생에게서 벗어나게 된 것을 기뻛하는 내용의 (B)가 이어져 글이 마무리되어야 흐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글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C)-(D)-(B)' 이다.

◎ 44번

(a), (b), (c), (d)는 Sean을 가리키지만, (e)는 Felix를 가리킨다.

◎ 45번

(C)에서 Felix는 자신의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학교 웹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을 이용해서 과학 공부를 하고 있었으므로,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2022년 합격을 위한 필수 선택!  
여러분의 든든한 입시 동반자 SKYEDU 이상인 선생님의

# 1년 세부 커리큘럼



## 지문을 읽게 해줄게

개념 도약 과정

- 1) 2021 수능 기출 분석 가이드
- 2) 평가원이 요구하는 독해사고력 1  
[문장순서 · 삽입편]
- 3) 평가원이 요구하는 독해사고력 2  
[빈칸 · 대의파악편]



## 1등급을 보여줄게

수능 심화 과정

- 1) 유형별 어법 공략
- 2) EBS 간접연계 119



## 문장을 읽게 해줄게

기초 입문 과정

- 1) 너희가 영어가 안 오르는 이유
- 2) The Sentence
- 3) 문장의 구조론
- 4) 문장의 유형론



## EBS 분석은 내게 맡겨

수능 간접 연계 최적화 과정

- 1) EBS 수능특강
- 2) EBS 영어독해연습
- 3) EBS 수능완성



## 수능날 너희들을 웃게 할 FINALE

- 1) 평가원 출제코드 분석
- 2) 이상인T 실전 모의고사 2회

지은이  
디자인  
펴낸곳  
교재관련 질문

이상인  
이은경  
THE CORE 영어 연구소  
<https://skyedu.conects.com>  
인스타그램 @sangin\_et